

# 한국사회 기회 불평등 조사 보고서

2016. 6. 10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Chapter I** 조사 개요

**Chapter II** 조사결과 분석 : 청소년기

**Chapter III** 조사결과 분석 : 청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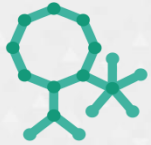
**Chapter IV** 조사결과 분석 : 중년기

**Chapter V** 조사결과 분석 : 노년기

**Chapter VI** 조사결과 분석 : 정치적 기회 실태 및 인식

**Chapter VII** 조사결과 분석 : 불평등 인식

**Chapter VIII** 조사결과 분석 :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I



##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2. 조사 관련 참고 사항
3. 응답자 분포
4. 조사 내용

1

## 모집단



- 전국 만16세 이상 만74세 남녀

2

## 표본크기



- 3,520명

3

## 표본추출



-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 고등학생 500명 할당 후,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 만19세 이상 만74세 이하 성인남녀 3000명 할당 후,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4

## 조사방법



- 한국리서치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60대 이상 일부 일반국민 대상 PI 조사(PI, Personal Interview)

5

## 과업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5일

## 2. 조사 관련 참고 사항

### 표본 추출 관련 이슈



-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500명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함
- 만19세 이상 만74세 이하 성인 3,000명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함

전체 샘플 수인 3,500명을 모집단인 2016년 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단순 비례할당하여 조사하면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가 165명 밖에 할당이 되지 않아, 분석에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500명 강제 할당함

### 가중치 보정 관련 이슈

#### 청소년 가중치 (변수명 : WT1)

- 조사 완료 후,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모집단 기준 지역/성/연령에 맞춰 가중보정함
- 따라서 청소년 파트 분석 시, 청소년 가중치(WT1)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을 권함

#### 전체 가중치 (변수명 : WT2)

- 본 조사는 결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샘플 확보를 위해 만 1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모집단에 비해 과대표집 함
- 따라서 만 16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전체 연령대가 공통으로 응답한 문항의 분석을 위해서는 모집단 기준 지역/성/연령에 맞춰 가중보정한 가중치를 사용할 것을 권함

본 보고서는 '청소년기' 파트 분석에는 청소년 가중치(WT1), '청소년기'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 분석 시, 전체 가중치(WT2)를 적용하여 분석함

### 3. 응답자 분포(3520명)

#### 응답자 분포

- 다음은 조사 완료 된 3,520명의 지역/성/연령 분포임

지역	계	16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74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3520	247	255	300	270	300	291	349	335	323	316	254	280
서울	708	45	47	62	63	65	64	67	66	60	62	51	56
부산	241	13	16	20	18	19	20	22	21	23	25	21	23
대구	172	12	14	15	13	13	13	17	17	16	16	12	14
인천	207	19	14	18	16	18	17	21	20	19	19	13	13
광주	100	8	10	9	8	8	8	10	10	8	8	6	7
대전	101	5	9	9	9	8	9	10	10	9	9	7	7
울산	79	6	3	7	5	8	6	8	8	8	8	5	7
경기	854	67	62	73	66	76	75	90	87	77	73	51	57
강원	102	6	8	8	7	8	7	10	9	10	10	9	10
충북	105	7	8	9	7	8	9	10	10	10	10	8	9
충남	135	9	9	12	9	12	8	16	14	14	10	10	12
전북	126	9	11	10	8	9	9	12	11	12	11	11	13
전남	125	8	11	10	8	9	8	12	10	12	12	12	13
경북	180	9	12	17	12	14	13	17	16	19	17	16	18
경남	227	19	17	18	16	19	17	23	22	22	20	17	17
제주	43	4	3	3	3	4	4	4	4	4	4	3	3
세종	15	1	1	0	2	2	4	0	0	0	2	2	1

### 3. 응답자 분포(3500명)

#### 응답자 분포

- 다음은 '전체 가중치(WT2)'로 보정된 3,500명의 지역/성/연령 분포임

지역	계	16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74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3500	86	79	331	298	333	319	385	372	358	352	280	308
서울	703	15	14	67	67	71	71	72	73	66	69	56	62
부산	245	5	5	23	20	21	21	24	24	26	27	23	26
대구	171	5	4	17	14	15	14	18	19	18	18	13	16
인천	201	5	4	20	18	20	19	22	22	21	21	14	15
광주	99	3	3	10	9	9	9	11	11	9	9	7	8
대전	103	3	3	11	9	10	10	11	11	10	10	7	8
울산	81	2	2	8	7	8	7	9	9	9	8	5	5
경기	847	22	20	81	74	85	83	100	97	86	81	57	61
강원	104	3	2	10	8	8	8	11	10	12	11	10	11
충북	106	3	3	10	8	10	9	12	11	11	11	9	10
충남	135	3	3	13	10	13	9	17	15	15	12	11	13
전북	123	3	3	11	10	10	10	13	12	13	12	12	13
전남	124	3	3	11	9	10	9	13	11	14	13	13	15
경북	180	4	4	16	13	16	14	19	17	20	19	18	20
경남	225	6	5	21	17	21	19	26	24	24	23	18	20
제주	41	1	1	4	3	4	4	5	5	4	4	3	4
세종	15	0	0	0	2	2	4	0	0	0	2	2	1

## 4. 조사 내용

### 응답자 특성



- 최종학력/고등학교 유형/고등학교 위치/대학교 위치/대학교 종류/전공/출생지
- 취업상태/승진 기회/근로소득/혼인상태/배우자 직업/자녀 수/부모 최종학력/부모 직업
- 가구원 수/가구 구성/가구 소득/가구 유형/점유형태/방 개수/집 마련 시 도움 정도/부채액

### 세대별 실태



- 청소년 (만16세-만18세) >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사교육 실태/진로 관련 등
- 청년 (만19세-만39세) > 대학생활/외국 방문 경험/취업 실태/연애 결혼 실태
- 중장년 (만34세-만59세) > 자녀 교육비/문화활동 및 관계 실태/퇴직 및 노후준비
- 노년층 (만60세-만74세) > 취업 실태/연금 가입 및 수령 실태/문화활동 및 관계 실태

### 기회불평등 실태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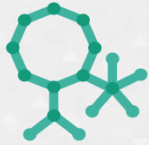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 어린시절 경험(학령기 전 예체능 사교육 경험/문화 활동 경험/가정 분위기)
- 정치적 기회 실태 및 인식(투표참여 여부 및 미참여 이유/정치에 대한 의견/정치 관심도)
-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연락 가능한 사회지도층 여부
- 15세 때의 주관적 계층 소속감/현재 계층 소속감/자녀의 예상 계층

### 기회불평등 인식 (공통)



- 개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세금에 대한 인식/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등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II



# 조사결과 분석 : 청소년기

-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 2)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 및 비용
- 3)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
- 4) 대학 진학 희망 여부
- 5) 대학 진학 시, 중요한 항목
- 6) 아르바이트 경험
- 7) 부모님과의 관계
- 8) 외국 방문 경험 여부
- 9) 외국 방문 경험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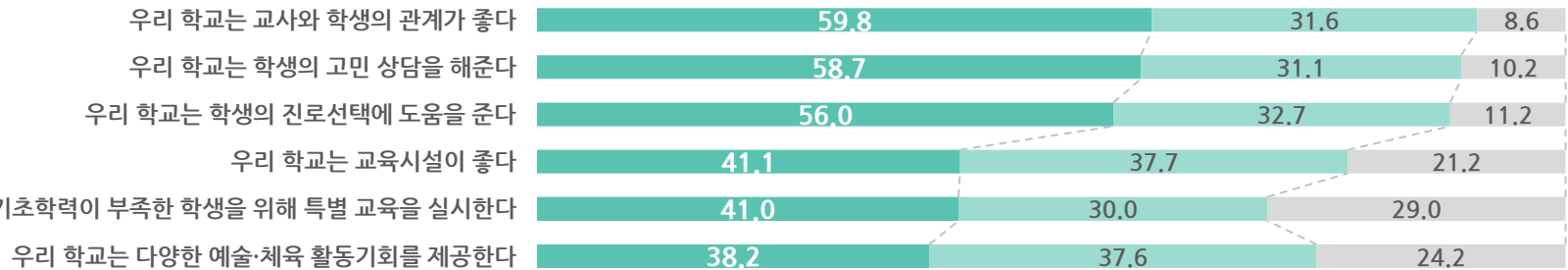
#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 59.8%,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다”

-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음.
-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다’는 평가와 ‘학생의 고민 상담을 해준다’, ‘학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예술체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는 ‘특성화고’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시설이 좋다’는 평가와 ‘특별교육을 실시 한다’는 평가는 ‘일반고’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N(청소년 전체)=500명, (단위: %)



학교유형	사례수(명)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다	학생의 고민 상담을 해준다	학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	교육시설이 좋다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예술체육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고	(385)	59.0	58.3	52.3	41.2	43.9	37.1
특목고	(6)	65.3	65.3	65.6	78.0	34.4	32.8
예술/체육고	(6)	49.3	33.4	68.7	30.9	18.0	84.5
특성화고	(98)	62.1	60.6	69.4	38.4	31.3	39.0
기타	(5)	78.6	78.6	57.3	57.3	35.8	57.3

\* ‘그렇다(매우+대체로)’ 값의 응답자 특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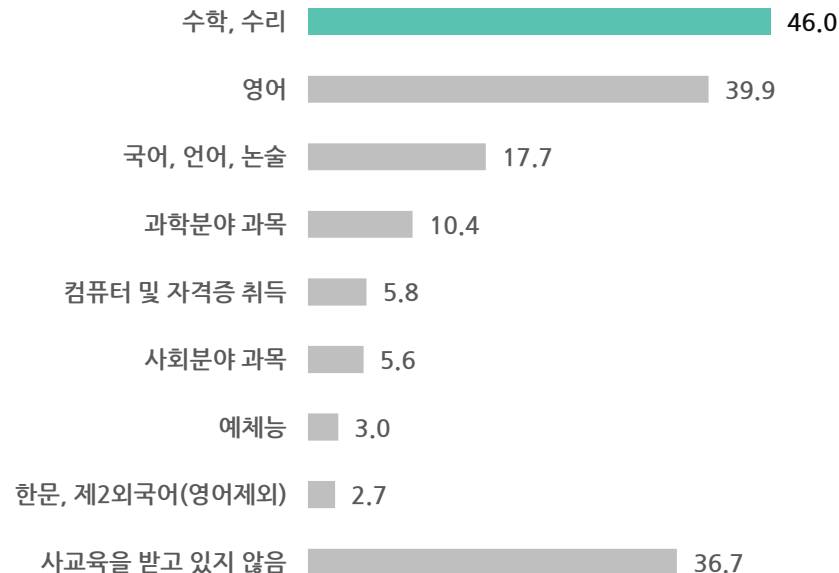
## (2)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 및 비용

### “월 사교육 지출 비용 21만원~40만원” 26.3%

- 청소년이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는 ‘수학, 수리’가 46.0%로 가장 높고, ‘영어(39.9%)’, ‘국어, 언어, 논술(17.7%)’, ‘과학분야 과목(10.4%)’ 등의 순임
-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7%임
- 월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은 ‘21만원~40만원’이 26.3%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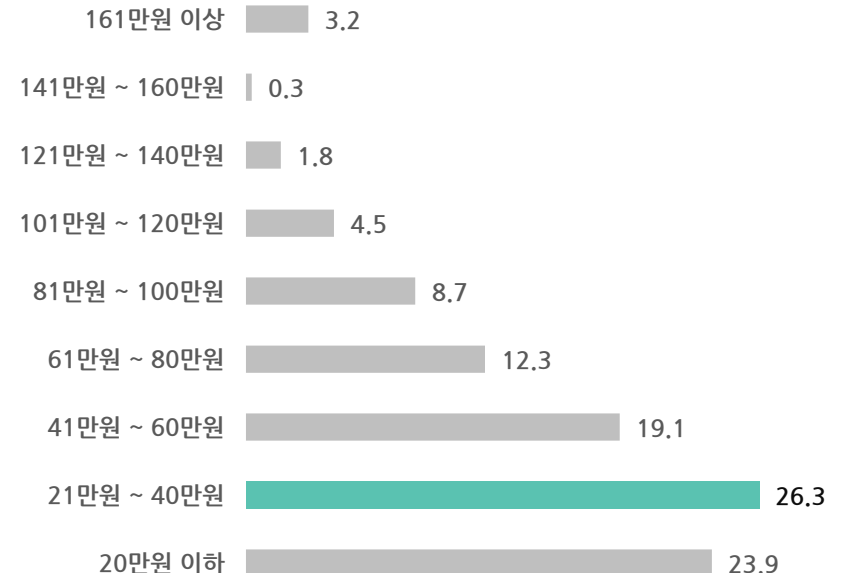
####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중복응답)

N(청소년 전체)=500명  
(단위: %)



#### 월 사교육 지출 비용

N(사교육 받음)=316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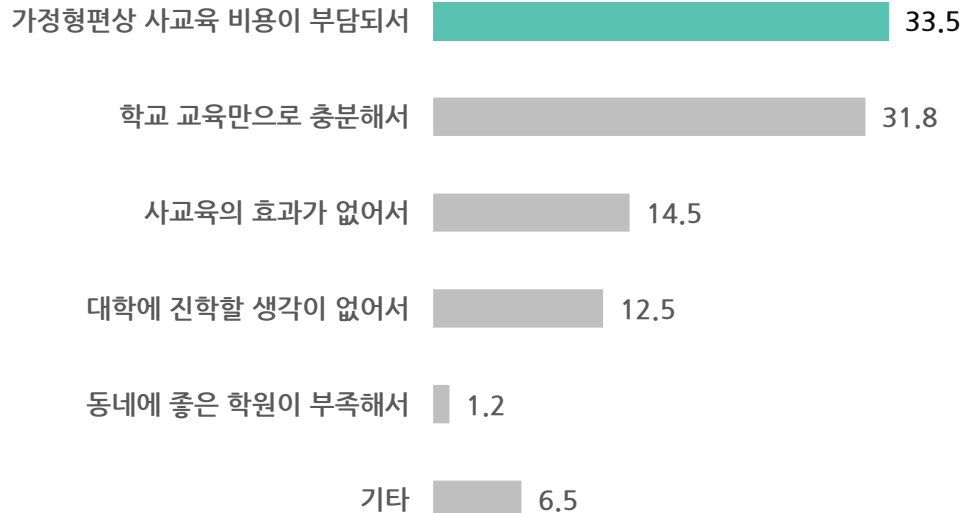


### (3)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

#### 사교육 받지 않는 이유, “가정형편상 사교육 비용이 부담되서” 33.5%

-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고등학생에게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가정형편상 사교육 비용이 부담되서’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음
- 그 외,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해서(31.8%)’, ‘사교육의 효과가 없어서(14.5%)’,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어서(12.5%)’ 등의 순임
- ‘가정형편상 사교육 비용이 부담되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반면, ‘사교육의 효과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N(사교육 받지 않음)=184명  
(단위: %)



#### 삶의 만족도별 분석

(단위: %)

삶의 만족도	가정형편상 사교육 비용이 부담되서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해서	사교육의 효과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어서
만족하지 않음	52.2	16.5	10.5	10.3
보통	33.3	38.0	13.5	12.5
만족함	23.9	37.7	16.8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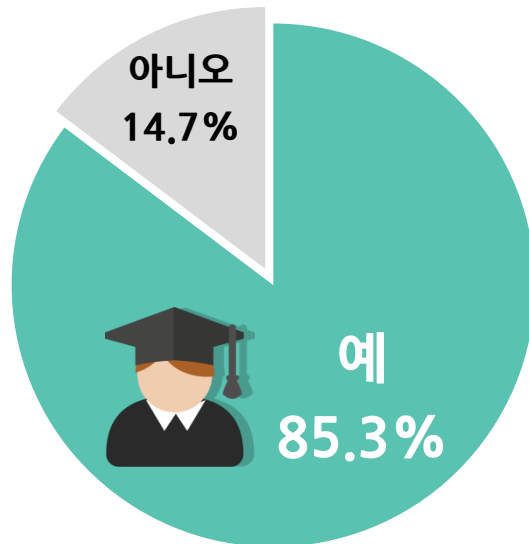
## (4) 대학 진학 희망 여부

### “대학 진학 희망함” 85.3%

- 고등학생의 85.3%는 대학 진학을 희망함
- 재학 학년이 낮을 수록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대학 진학 희망 여부

N(청소년 전체)=500명



#### 학년별 분석

(단위 : %)

연령	대학 진학 희망함	대학 진학 희망하지 않음
1학년	87.7	12.3
2학년	87.0	13.0
3학년	81.7	18.3
기타	58.2	41.8

#### 아르바이트 경험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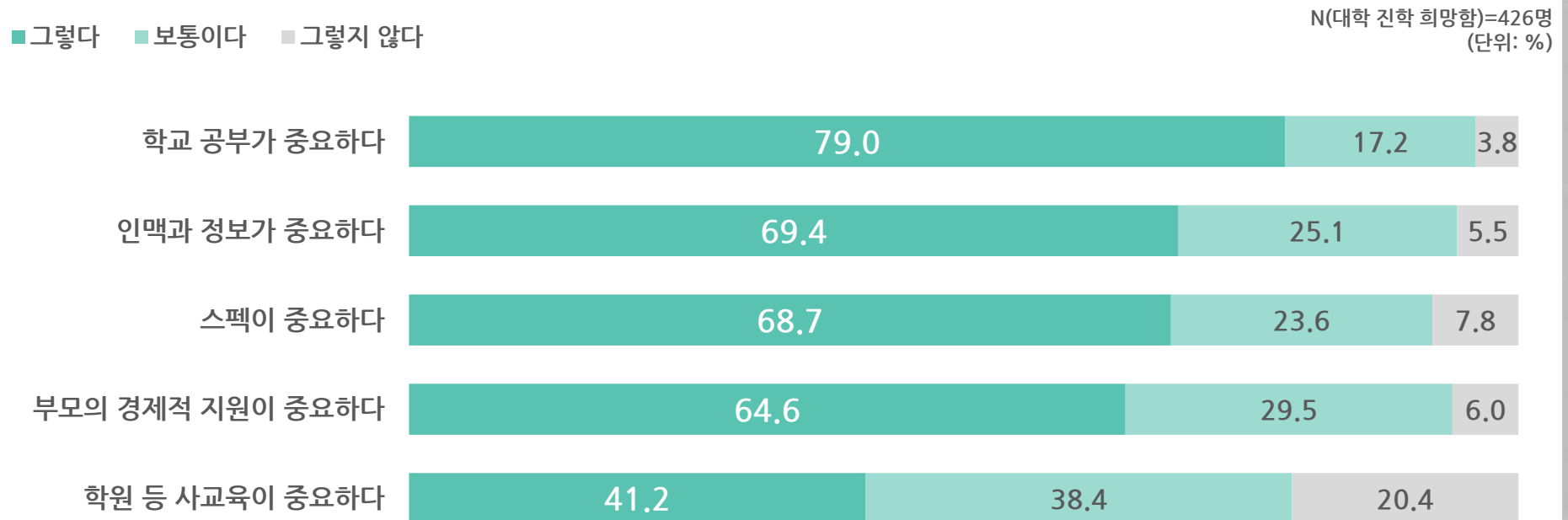
(단위 : %)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 진학 희망함	대학 진학 희망하지 않음
아르바이트함	70.2	29.8
아르바이트 안함	87.9	12.1

## (5) 대학 진학 시, 중요한 항목

###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79.0%

-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각 항목의 중요도에 묻은 결과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79.0%로 가장 높음
- 그 외, ‘인맥과 정보가 중요하다(69.4%)’, ‘스펙이 중요하다(68.7%)’,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64.6%)’ 순임
- 반면, ‘학원 등 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41.2%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사교육의 중요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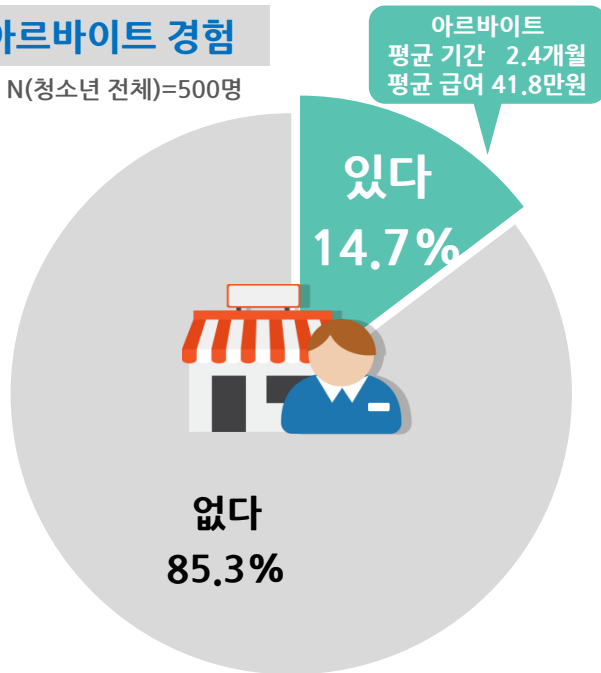
## (6) 아르바이트 경험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14.7%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7%로 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됨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르바이트 평균 기간은 2.4개월이며, 평균 급여는 41.8만원임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현재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아르바이트 경험

N(청소년 전체)=500명



#### 삶의 만족도별 분석 (단위 : %)

삶의 만족도별 분석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만족하지 않음	17.6	82.4
보통	16.6	83.4
만족함	12.8	87.2

#### 본인의 계층별 분석 (단위 : %)

본인의 계층별 분석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상	10.9	89.1
중	14.9	85.1
하	15.6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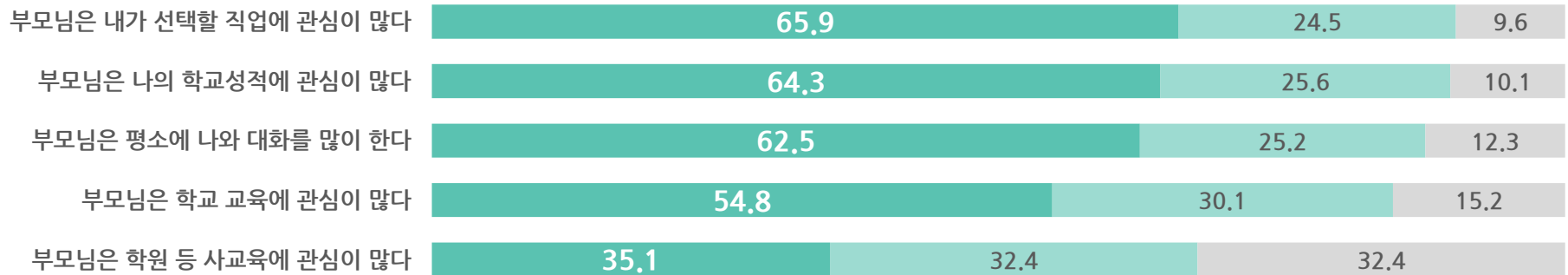
## (7) 부모님과과의 관계

### 부모의 자녀에 대해 관심, “자녀가 본인의 계층을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

-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직업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응답은 65.9%로 가장 높음
- 부모의 자녀의 직업에 대한 관심, 학교 성적에 대한 관심, 대화 정도,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사교육에 대한 관심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등학생 자녀 스스로가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N(청소년 전체)=500명  
(단위: %)



본인의 계층	직업에 관심이 많다	학교성적에 관심이 많다	대화를 많이 한다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다	사교육에 관심이 많다
상	87.6	83.8	85.6	66.6	47.3
중	67.9	68.0	64.7	60.6	39.3
하	56.2	53.1	52.1	43.1	25.5

\* ‘그렇다(매우+대체로)’ 값의 응답자 특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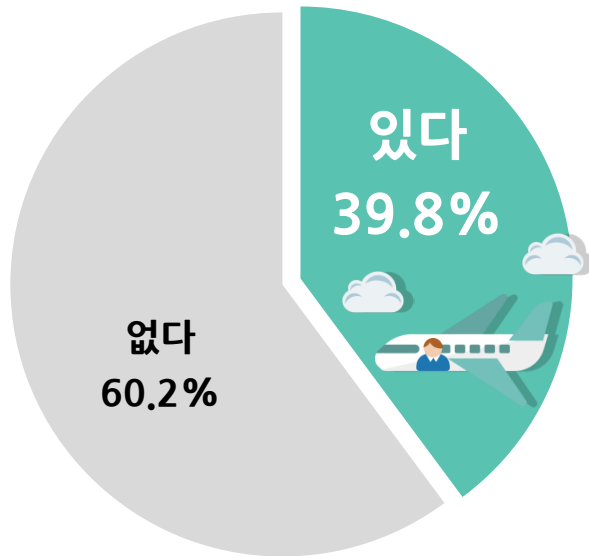
## (8) 외국방문 경험 여부

### “외국방문 경험 있다” 39.8%

- ‘외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9.8%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60.2%임
- ‘외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용돈이 10만원 이상(50.0%)’인 경우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음(40.5%)’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 외국 방문 경험

N(청소년 전체)=500명



(단위 : %)

Base=청소년 전체	있다	없다
<b>용돈</b>		
3만원 미만	29.6	70.4
3만원~5만원 미만	40.3	59.7
5만원~10만원 미만	39.3	60.7
10만원 이상	50.0	50.0
<b>아르바이트경험</b>		
아르바이트함	35.8	64.2
아르바이트하지않음	40.5	59.5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33.1	66.9
보통	33.4	66.6
만족함	44.8	55.2
<b>본인의계층</b>		
상	61.4	38.6
중	39.3	60.7
하	33.7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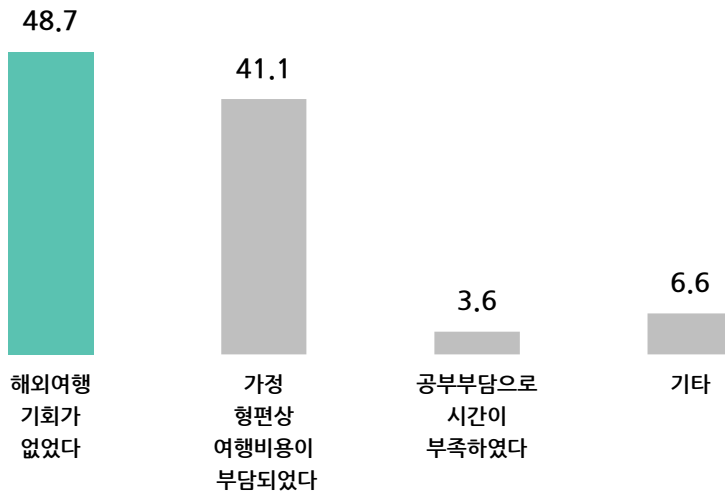
## (9) 외국방문 경험 없는 이유

### 외국 방문 경험 없는 이유, “해외 여행 기회가 없었다” 48.7%

- 외국 방문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경험이 없는 이유를 물은 결과,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고, ‘가정형편상 여행비용이 부담되었다(41.1%)’, ‘공부부담으로 시간이 부족하였다(3.6%)’ 순임
- ‘해외여행 기회가 없어서’ 외국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50.0%)’, ‘삶의 만족도 보통(53.9%)’, ‘본인의 계층 중(60.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정형편상 여행비용이 부담되었다’는 응답은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50.0%)’, ‘삶의 만족도 낮음(55.1%)’, ‘본인의 계층 하(5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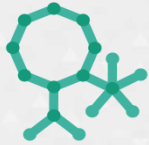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 외국방문경험 없는 이유

N(외국 방문경험 없음)=301명  
(단위 : %)



(단위 : %)

Base=외국 방문 경험 없음	해외여행 기회가 없었다	가정형편상 여행비용이 부담되었다	공부 부담으로 시간이 부족하였다	기타
<b>아르바이트경험</b>				
아르바이트함	41.3	50.0	2.2	6.5
아르바이트하지않음	50.0	39.4	3.9	6.6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39.4	55.1	1.1	4.4
보통	53.9	32.9	6.6	6.6
만족함	51.6	36.8	3.9	7.8
<b>본인의계층</b>				
상	56.3	30.9	0.0	12.8
중	60.2	28.4	4.8	6.7
하	32.8	58.8	2.9	5.4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III



# 조사결과 분석 : 청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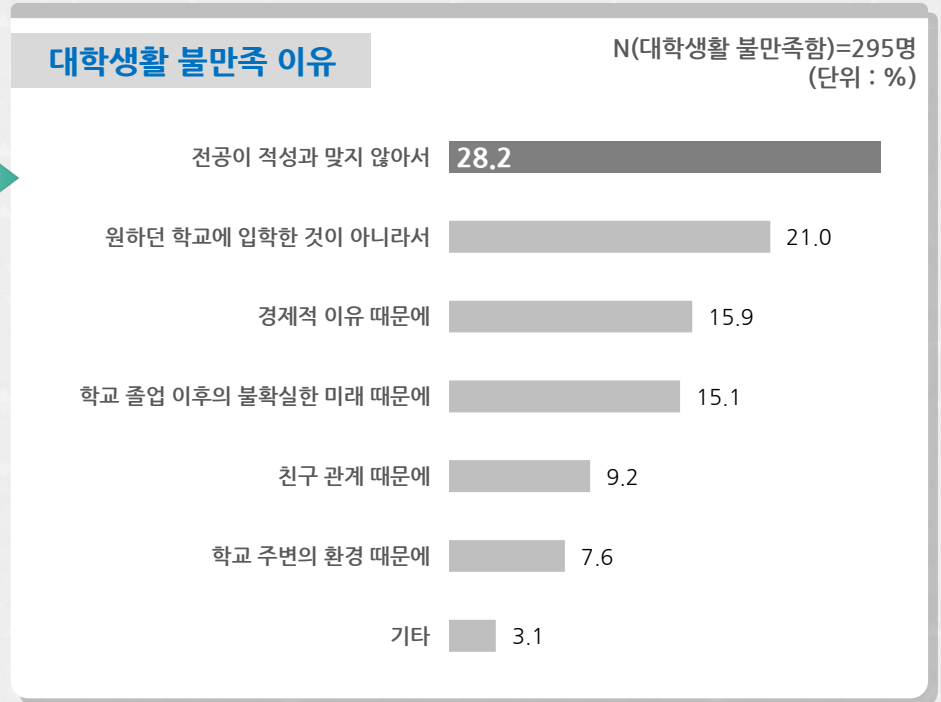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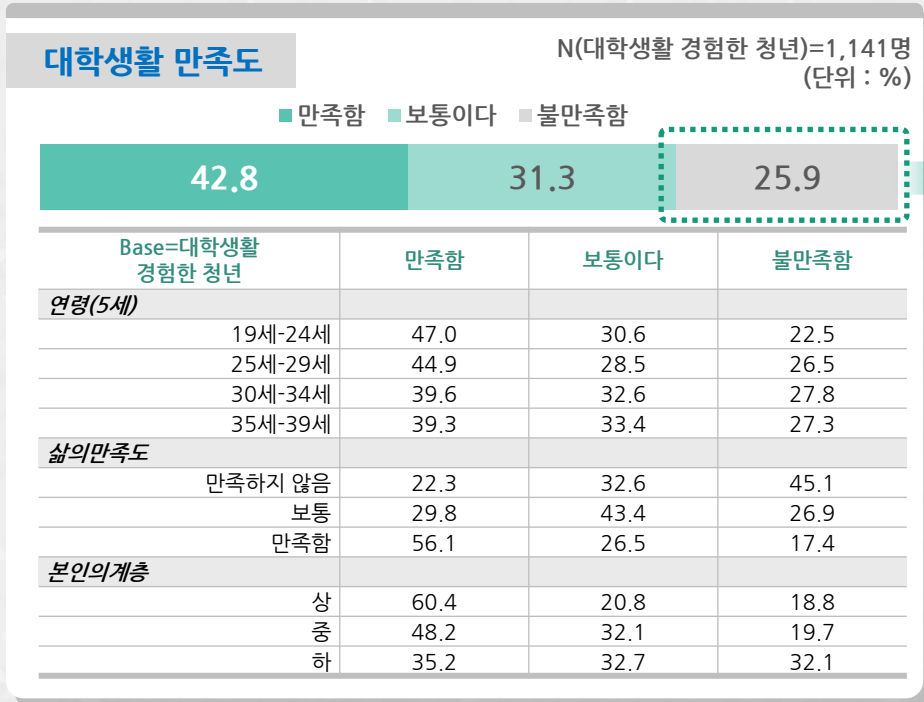
## 1. 대학생 및 20대의 생활

- 1) 대학생 만족도/만족하지 않는 이유
- 2) 단체활동 참여 정도/리더 위치에 서 본 경험
- 3) 외국 방문 경험 여부
- 4) 외국 방문 간 및 비용 마련 방법

# (1) 대학생 생활 만족도/만족하지 않는 이유

## 대학 생활 경험한 청년 10명 중 4명, “대학 생활 만족함”

- 대학 생활 경험한 청년에게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별로+전혀)’는 응답은 25.9%임
- 대학 생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청년에게 이유를 묻은 결과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어서(21.0%)’, ‘경제적 이유 때문에(15.9%)’, ‘학교 졸업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15.1%)’ 등의 순임
- 대학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2) 단체활동 참여 정도/리더 위치에 서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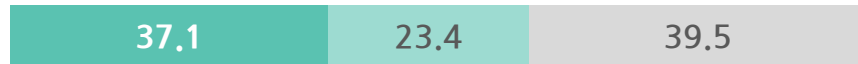
### 단체활동 및 리더 경험,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 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아”

- 대학생할 시, ‘단체활동 참여 했다(매우 자주+대체로 자주)’는 응답은 37.1%이며, ‘리더의 위치에 서 본 경험이 있다(대단히 많이+여러 번)’는 응답은 24.0%임
- 단체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 수록, ‘남자(39.4%)’, ‘20대 후반(4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리더의 위치에 서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 수록, ‘남자(26.6%)’, ‘20대 후반(2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단체생활 참여정도

N(대학생활 경험한 청년)=1,141명  
(단위 : %)

■ 참여함 ■ 보통이다 ■ 참여하지 않음



Base=대학생활 경험한 청년	참여함	보통이다	참여하지 않음
<b>성별</b>			
남자	39.4	26.7	33.9
여자	34.7	19.7	45.6
<b>연령(5세)</b>			
19세-24세	35.7	25.0	39.3
25세-29세	40.9	24.0	35.1
30세-34세	39.0	21.1	39.9
35세-39세	33.6	23.3	43.1
<b>본인의계층</b>			
상	45.8	27.5	26.7
중	39.0	27.8	33.2
하	34.0	19.1	46.9

#### 리더의 위치에 서 본 경험

N(대학생활 경험한 청년)=1,141명  
(단위 : %)

■ 경험함 ■ 보통이다 ■ 경험해보지 않음



Base=대학생활 경험한 청년	경험함	보통이다	경험하지 않음
<b>성별</b>			
남자	26.6	30.6	42.8
여자	21.0	28.4	50.5
<b>연령(5세)</b>			
19세-24세	22.9	27.7	49.3
25세-29세	27.5	29.0	43.5
30세-34세	24.3	34.2	41.4
35세-39세	21.7	27.5	50.9
<b>본인의계층</b>			
상	32.1	35.5	32.4
중	28.2	28.7	43.1
하	19.0	29.1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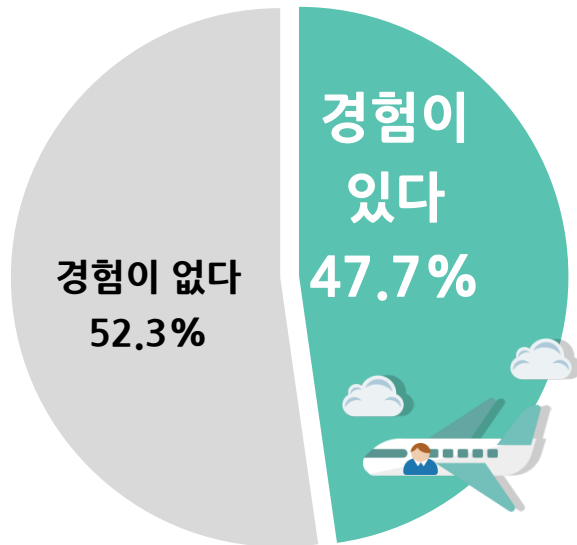
### (3) 외국방문 경험 여부

#### 청년의 47.7%, “20대 때 외국 방문 경험 있다”

- 외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임
- 외국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20대 후반(56.7%)’,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6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외국 방문 경험

N(청년 전체)=1,282명



(단위 : %)

Base=청년 전체	사례수 (명)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b>연령(5세)</b>			
19세-24세	(361)	43.4	56.6
25세-29세	(268)	56.7	43.3
30세-34세	(317)	51.6	48.4
35세-39세	(336)	41.7	58.3
<b>가구소득</b>			
100만원 이하	(33)	33.4	66.6
101만원~200만원	(118)	35.2	64.8
201만원~300만원	(238)	43.4	56.6
301만원~400만원	(249)	42.8	57.2
401만원~500만원	(203)	47.6	52.4
501만원~600만원	(143)	51.7	48.3
601만원~700만원	(86)	60.5	39.5
701만원 이상	(162)	66.4	33.6
잘모름	(48)	38.5	61.5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313)	32.8	67.2
보통	(259)	49.3	50.7
만족함	(710)	53.8	46.2
<b>본인의계층</b>			
상	(122)	64.2	35.8
중	(501)	53.2	46.8
하	(658)	40.6	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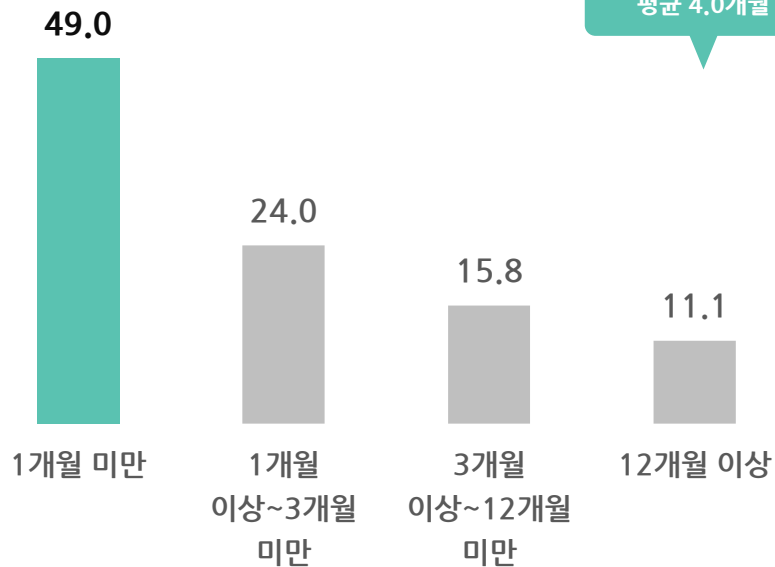
## (4) 외국 방문 기간 및 비용 마련 방법

### 해외 방문 비용 마련 방법, “자비(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 가장 높아

- 해외 방문 기간은 ‘1개월 미만’이 49.0%로 가장 높고, 해외 방문 평균 기간은 4.0개월 임
- 해외 방문 시, ‘자비(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로 비용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고, ‘자비+부모님 지원(30.0%)’, ‘부모님으로부터 지원(21.3%)’,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의 지원(9.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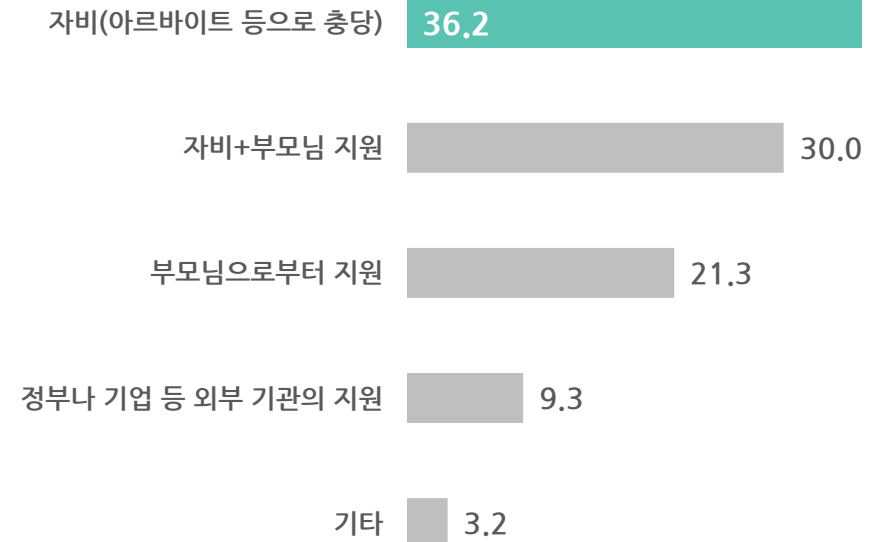
#### 해외 방문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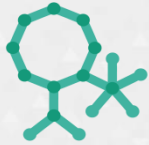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N(해외 방문 경험 있음)=612명  
(단위 : %)



#### 해외 방문 비용 마련 방법

N(대학생활 불만족함)=295명  
(단위 : %)





## CHAPTER III

# 조사결과 분석 : 청년기

## 2. 청년의 취업 및 구직활동

- 1) 취업자 : 구직 기간/취업시도 횟수
- 2) 취업자 : 취업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항
- 3) 취업자 : 취업 실패 이유
- 4) 취업자 : 취업을 위해 돈을 내고 받은 교육 종류
- 5) 미취업자 : 구직기간
- 6) 미취업자 : 취업하기 위해 했던 노력
- 7) 비정규직 : 임시 일자리 여부
- 8) 비정규직 : 임시로 일을 하는 이유



# (1) 취업자: 구직 기간/취업 시도 횟수

## “평균 구직 기간 14.6개월”, “평균 취업 시도 횟수 11.4회”

-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의 평균 구직 기간은 14.6개월이며, 평균 취업 시도 횟수는 11.4회임
- 구직기간은 ‘여자(16.9개월)’, ‘비임금 근로자(30.1개월)’, ‘삶에 만족하지 않음(18.2개월)’, ‘본인의 계층 중(14.8개월) 및 하(14.7개월)’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 시도 횟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남자(12.4회)’, ‘정규직(12.6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구직 기간

Base=일하고 있는 청년	사례수 (명)	평균 (개월)
▣ 전체 ▣	(746)	14.6
<b>성별</b>		
남자	(408)	12.6
여자	(338)	16.9
<b>종사상지위</b>		
정규직	(543)	14.4
비정규직	(152)	10.9
비임금근로자	(46)	30.1
무급가족종사자	(5)	6.5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178)	18.2
보통	(154)	13.1
만족함	(415)	13.6
<b>본인의계층</b>		
상	(68)	13.3
중	(293)	14.8
하	(385)	14.7

### 취업 시도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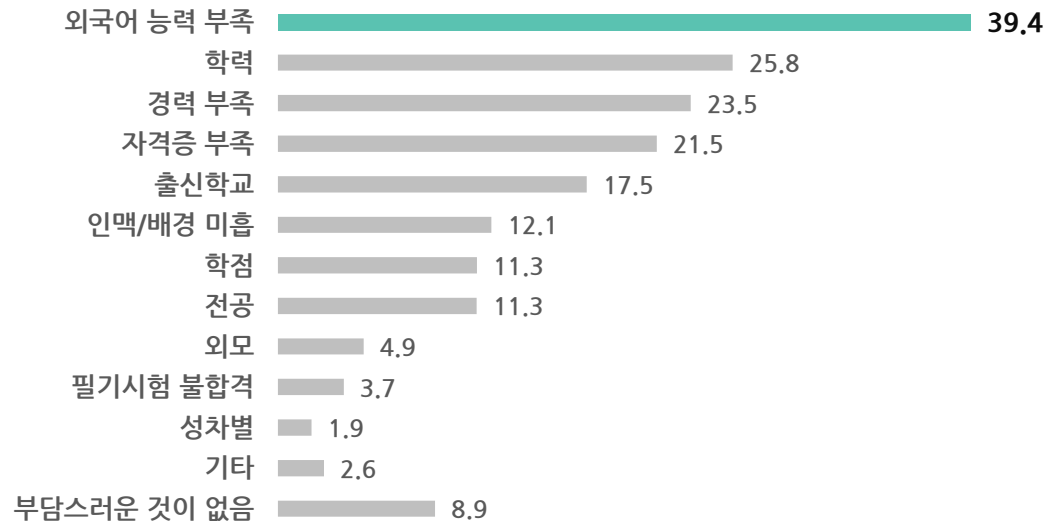
Base=일하고 있는 청년	사례수 (명)	평균 (회)
▣ 전체 ▣	(746)	11.4
<b>성별</b>		
남자	(408)	12.4
여자	(338)	10.1
<b>종사상지위</b>		
정규직	(543)	12.6
비정규직	(152)	8.5
비임금근로자	(46)	6.8
무급가족종사자	(5)	5.5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178)	15.2
보통	(154)	11.8
만족함	(415)	9.6
<b>본인의계층</b>		
상	(68)	8.8
중	(293)	10.3
하	(385)	12.6

## (2) 취업자 : 취업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항(1+2순위, 중복응답)

### 취업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항, “외국어 능력 부족” 39.4%

- 취업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항에 대해 ‘외국어 능력 부족’ 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고, ‘학력(25.8%)’, ‘경력 부족(23.5%)’, ‘자격증 부족(21.5%)’, ‘출신학교(17.5%)’, ‘인맥/배경 미흡(12.1%)’ 등의 순임
- ‘외국어 능력’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전문대졸 이상(43.8%)’, ‘정규직(41.2%)’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53.8%)’, ‘비정규직(2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력’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26.0%)’, ‘비정규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일하고 있는 청년)=746명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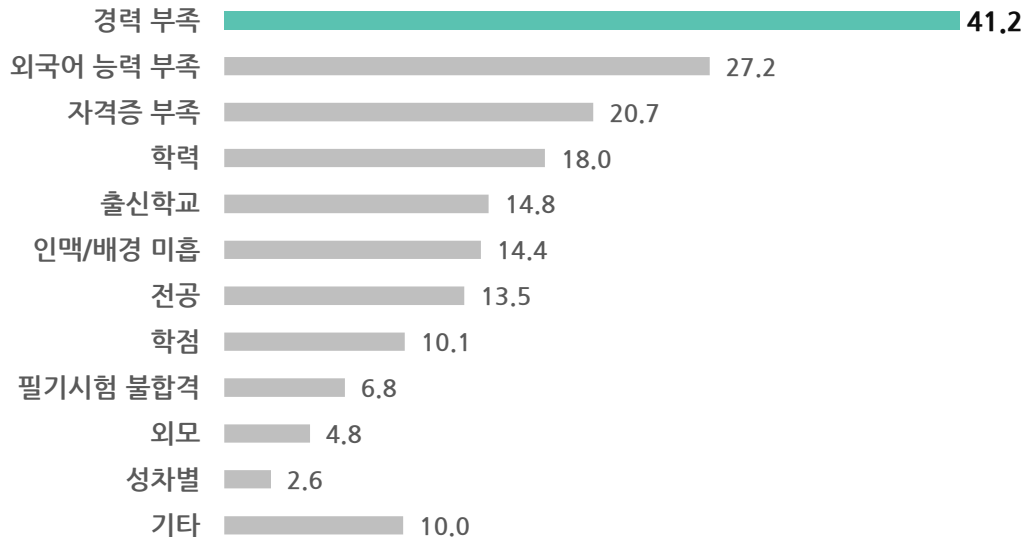
	Base=일하고 있는 청년	사례수 (명)	외국어 능력 부족	학력	경력 부족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2)	49.9	49.9	0.0	
고등학교졸업이하	(157)	22.6	53.8	26.0	
전문대졸이상	(587)	43.8	18.3	22.9	
<b>중사상지위</b>					
정규직	(543)	41.2	25.9	23.2	
비정규직	(152)	35.5	26.8	25.6	
비임금근로자	(46)	31.8	19.3	19.1	
무급가족종사자	(5)	26.8	52.5	25.7	

### (3) 취업자: 취업 실패 이유(1+2순위, 중복응답)

#### 취업실패 이유, “경력 부족” 41.2%

- 취업 실패경험이 1번 이상 있는 응답자에게 취업 실패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경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고, ‘외국어 능력 부족(27.2%)’, ‘자격증 부족(20.7%)’, ‘학력(18.0%)’, ‘출신학교(14.8%)’ 등의 순임
- ‘경력’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46.9%)’, ‘비임금근로자(55.6%)’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외국어 능력’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전문대졸 이상(31.7%)’, ‘정규직(28.4%)’ 및 ‘비임금근로자(28.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자격증’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25.7%)’, ‘비임금근로자(2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취업 실패경험 1번이상 있음)=671명  
(단위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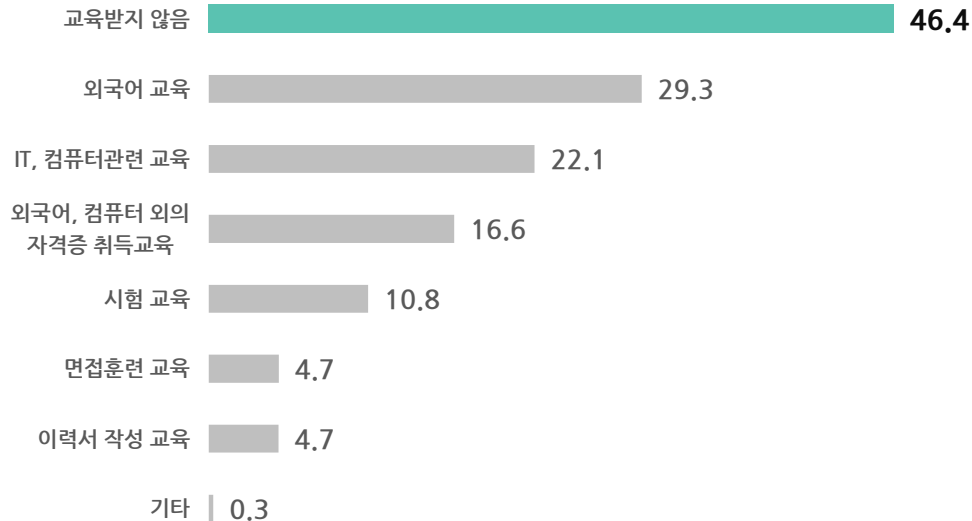
Base=취업실패경험 1번 이상 있음	사례수 (명)	경력 부족	외국어 능력 부족	자격증 부족	학력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2)	49.9	0.0	0.0	49.9
고등학교졸업이하	(135)	46.9	9.9	25.7	37.3
전문대졸이상	(534)	39.7	31.7	19.5	13.0
<b>종사상지위</b>					
정규직	(498)	38.9	28.4	21.4	17.5
비정규직	(127)	45.5	21.7	16.5	20.1
비임금근로자	(43)	55.6	28.9	26.4	15.8
무급가족종사자	(3)	32.3	36.1	0.0	36.1

## (4) 취업자 : 취업을 위해 돈을 내고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 취업을 위해 돈을 내고 받은 교육, “외국어 교육” 29.3%

- ‘외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고, 그 외 ‘IT, 컴퓨터 관련 교육(22.1%)’, ‘외국어, 컴퓨터 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16.6%)’, ‘공무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시험 교육(10.8%)’ 등의 순임
- 응답자의 46.4%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외국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정규직(3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비정규직(5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일하고 있는 청년)=746명  
(단위 : %)



(단위 : %)

	Base=일하고 있는 청년	사례수 (명)	교육받지 않음	외국어 교육	IT, 컴퓨터 관련 교육
<b>중사상지위</b>					
정규직	(543)		44.4	32.0	22.0
비정규직	(152)		53.6	22.2	20.9
비임금근로자	(46)		48.8	19.7	26.5
무급가족종사자	(5)		25.7	50.8	26.8
<b>본인의계층</b>					
상	(68)		37.6	42.8	14.8
중	(293)		42.4	32.0	22.1
하	(385)		51.0	25.0	23.3

##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 “10.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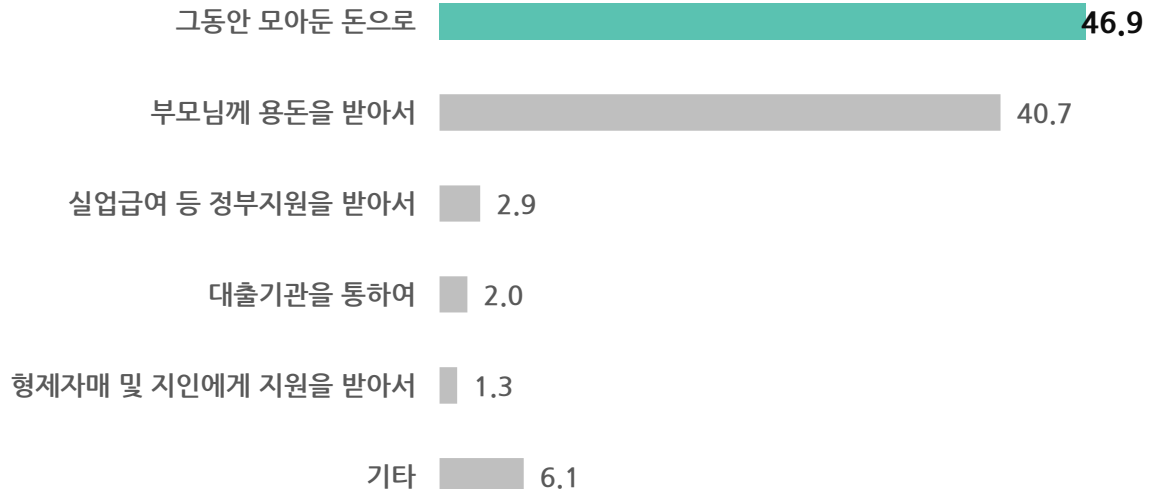
-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10.5개월임
- 구직 기간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남자(11.1개월)’, ‘전문대졸 이상(13.2개월)’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구직 기간 중 생활비 충당 방법에 대해 ‘그 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당했다(46.9%)’ 는 응답이 가장 높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40.7%)’,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아서(2.9%)’, ‘대출기관을 통하여(2.0%)’ 등의 순임

### 구직기간

Base=구직활동 중인 청년	사례수 (명)	평균 (개월)
■ 전체 ■	(268)	10.5
<b>성별</b>		
남자	(136)	11.1
여자	(132)	10.0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3)	3.0
고등학교졸업이하	(114)	7.3
전문대졸이상	(150)	13.2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78)	14.2
보통	(62)	12.8
만족함	(128)	7.3
<b>본인의계층</b>		
상	(22)	7.8
중	(98)	8.4
하	(148)	12.4

### 구직기간 중 생활비 충당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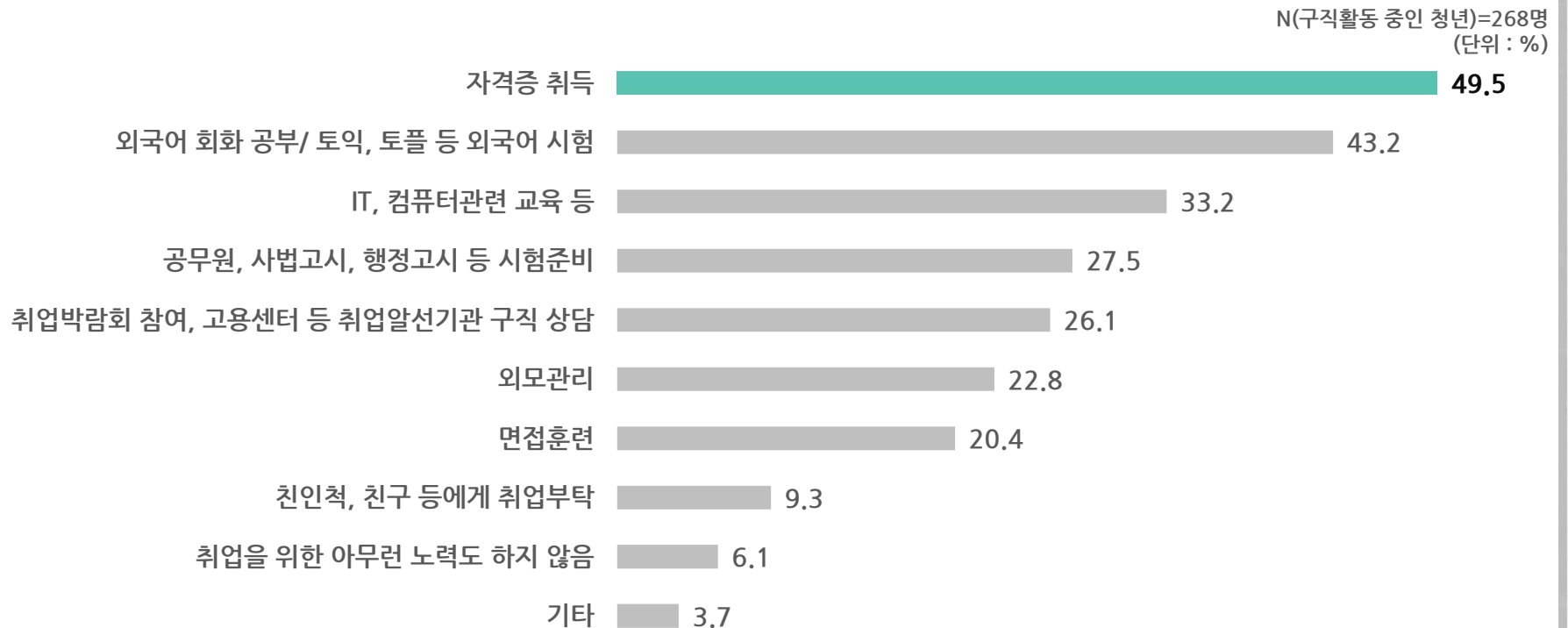
N(구직활동 중인 청년)=268명  
(단위 : %)



## (6) 미취업자 : 취업하기 위해 했던 노력

### 취업하기 위해 했던 노력, “자격증 취득” 49.5%

-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취업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묻은 결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음
- 그 외, ‘외국어 시험(43.2%)’, ‘IT, 컴퓨터 관련 교육 등(33.2%)’, ‘공무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시험준비(27.5%)’, ‘취업박람회 참여,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기관 구직상담(26.1%)’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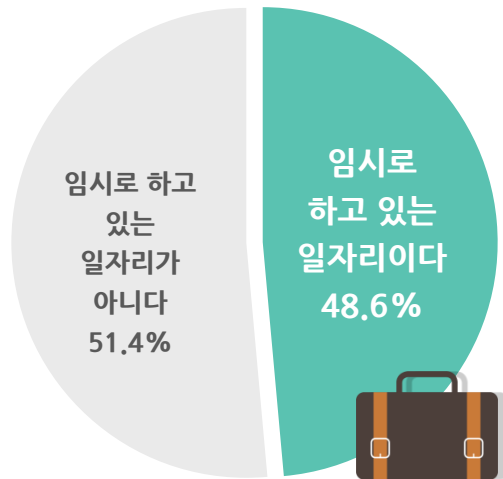
## (7) 비정규직 : 임시 일자리 여부

###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의 51.4%,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현재의 일자리가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인지 묻은 결과,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1.4%이며,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이다’라는 응답은 48.6%임
-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절반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정규직을 위해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 생계를 위한 최종 일자리의 의미로써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을 낮게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문대졸 이상(5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임시일자리 여부

N(비정규직 종사하고 있는 청년)=152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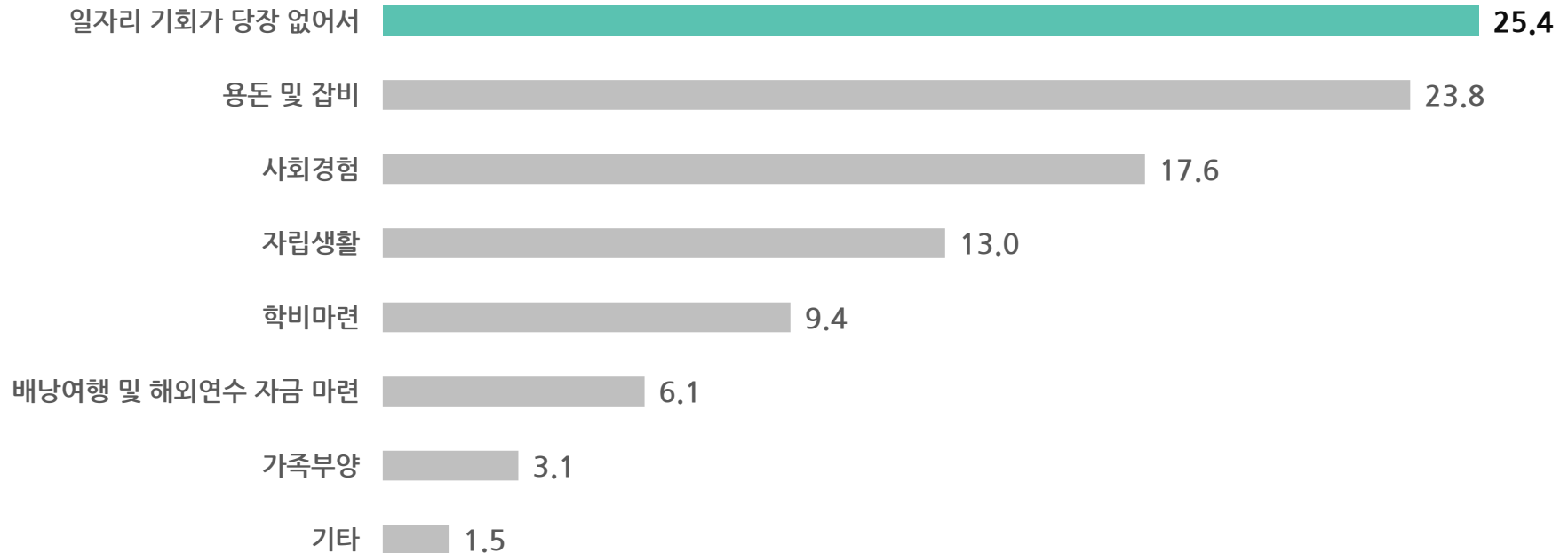
Base=비정규직인 청년	사례수 (명)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이다	임시로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b>연령(5세)</b>			
19세-24세	(42)	65.1	34.9
25세-29세	(33)	64.3	35.7
30세-34세	(38)	41.4	58.6
35세-39세	(39)	24.3	75.7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1)	100.0	0.0
고등학교졸업이하	(45)	51.3	48.7
전문대졸이상	(106)	46.9	53.1
<b>근로소득</b>			
100만원 이하	(25)	73.3	26.7
101만원~200만원	(80)	45.8	54.2
201만원~300만원	(39)	39.3	60.7
301만원~400만원	(8)	43.4	56.6
<b>본인의계층</b>			
상	(7)	54.9	45.1
중	(51)	50.3	49.7
하	(94)	47.1	52.9

## (8) 비정규직 : 임시로 일을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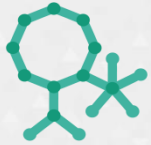
### 임시로 비정규직 일을 하는 이유, “일자리 기회가 당장 없어서”, 25.4%

-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시로 일을 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일자리 기회가 당장 없어서’라는 응답이 25.4%로 가장 높음
- 그 외, ‘용돈 및 잡비를 벌기위해(23.8%)’, ‘사회경험을 위해(17.6%)’, ‘자립생활(13.0%)’, ‘학비마련(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임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74명  
(단위 : %)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III



# 조사결과 분석 : 청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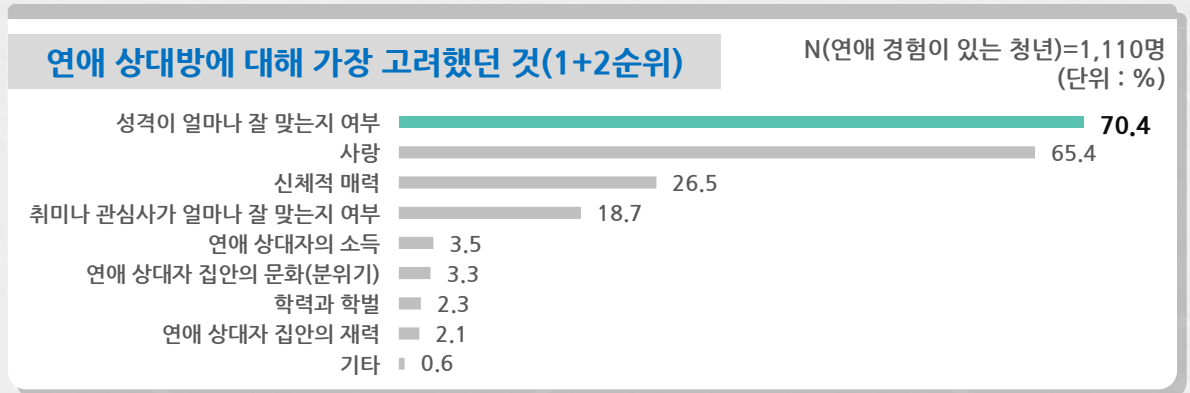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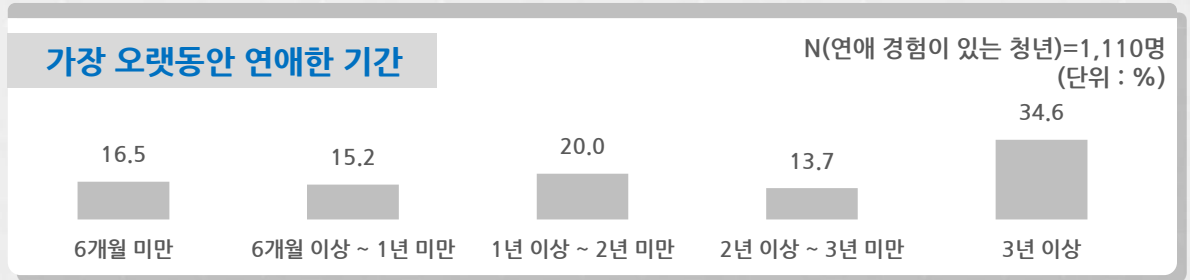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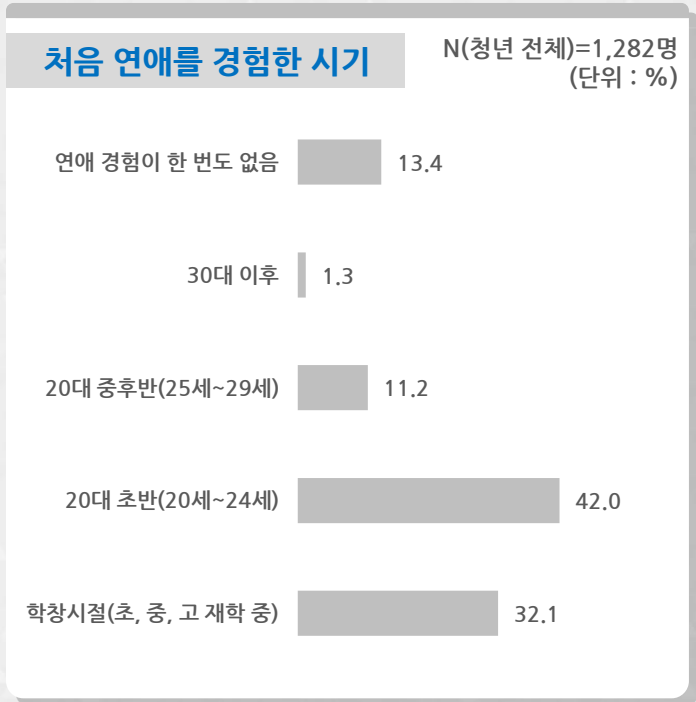
### 3. 청년의 연애와 결혼

- 1) 청년의 연애 경향
- 2) 연애 상대자 만나기 쉬운 정도
- 3) 미혼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 4) 미혼 청년의 자녀에 대한 인식
- 5) 결혼 비용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및 실태

# (1) 청년의 연애 경향

## 연애 상대방에 대해 가장 고려했던 것,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여부” 70.4%

- 20대, 30대의 청년이 처음 연애를 경험한 시기는 '20대초반(20~24세)'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고, '학창시절(초, 중, 고 재학중)(32.1%)', '20대 중후반(25세~29세)(11.2%)' 순임.
- 연애 경험이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13.4%이며, 가장 오랫동안 연애한 기간은 '3년 이상'이 34.6%임
- 연애 상대방에 대해 가장 고려했던 사항은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여부'라는 응답이 70.4%로 가장 높고, '사랑(65.4%)', '신체적 매력(26.5%)', '취미나 관심사가 얼마나 잘 맞을지 여부(18.7%)'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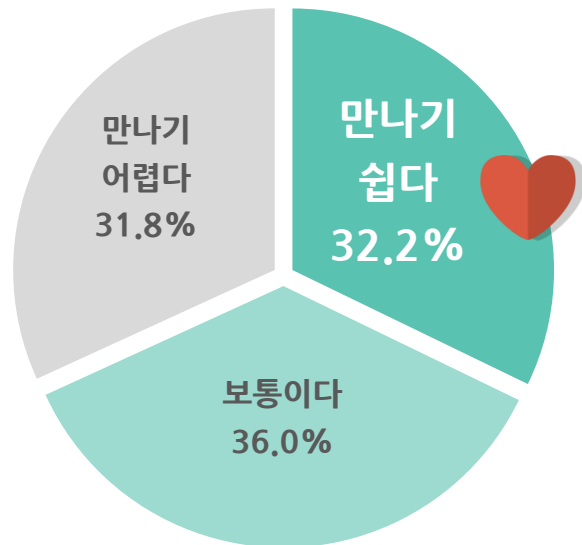


## (2) 연애 상대자 만나기 쉬운 정도

### 연애경험이 있는 청년 32.2%, “연애상대 만나기 쉬움”

- 연애 상대자를 만나기 쉬운 정도에 대해 묻은 결과, ‘만나기 쉽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32.2%이며, ‘만나기 어렵다(별로+전혀)’는 응답은 31.8%임
- 연애 상대자를 ‘만나기 쉽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6.4%)’, ‘30세-34세(37.5%)’, ‘삶에 대해 만족함(39.5%)’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애 상대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2.1%)’, ‘25-29세(3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1,11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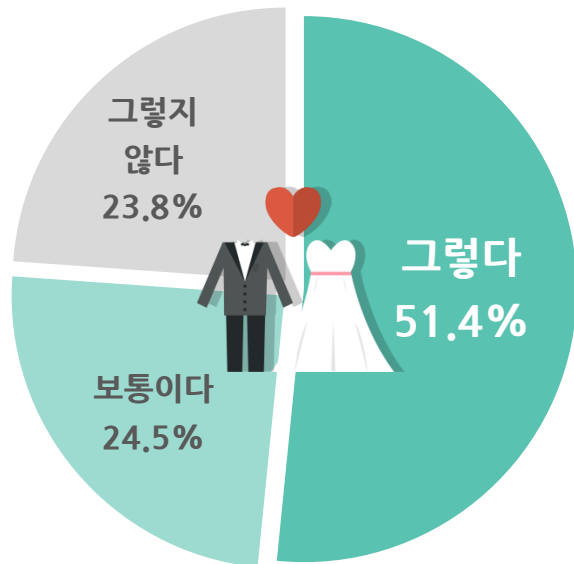
	만나기 쉽다	보통이다	만나기 어렵다
<b>성별</b>			
남자	28.1	40.4	31.6
여자	36.4	31.5	32.1
<b>연령(5세)</b>			
19세-24세	29.8	35.7	34.5
25세-29세	28.0	32.8	39.1
30세-34세	37.5	37.9	24.6
35세-39세	32.1	36.6	31.3
<b>삶의만족도</b>			
만족하지 않음	23.5	31.0	45.5
보통	21.8	47.8	30.4
만족함	39.5	33.7	26.8
<b>본인의계층</b>			
상	48.5	33.2	18.3
중	37.4	37.0	25.5
하	25.0	35.7	39.3

### (3) 미혼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 미혼 청년 절반, “향후 결혼 할 것”

- 미혼 청년에게 향후 결혼 할 것인지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1.4%, ‘그렇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23.8%임
- 결혼을 ‘할 것 같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계층을 높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55.9%)’,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6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결혼을 ‘할 것 같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대(28.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4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미혼 청년)=810명



(단위 : %)

Base=미혼인 청년	사례수 (명)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연령(10세)				
19세-29세	(600)	55.9	21.4	22.3
30세-39세	(210)	38.5	33.3	28.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1)	28.9	29.3	41.7
101만원~200만원	(96)	46.9	26.5	26.6
201만원~300만원	(151)	50.9	28.4	20.7
301만원~400만원	(125)	53.4	27.3	17.5
401만원~500만원	(104)	42.8	20.2	37.0
501만원~600만원	(93)	53.4	27.4	19.2
601만원~700만원	(55)	57.3	12.2	30.6
701만원 이상	(112)	65.0	19.1	15.9
잘모름	(45)	48.0	27.9	24.1
삶의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229)	35.8	24.1	40.1
보통	(165)	43.6	32.3	24.1
만족함	(416)	63.2	21.6	14.7
본인의계층				
상	(79)	60.9	26.7	12.5
중	(292)	57.6	25.2	16.8
하	(439)	45.7	23.6	30.5

## (4) 미혼 청년의 자녀에 대한 인식

### 미혼 청년, “자녀 2명 계획” 46.5%

- 미혼 청년에게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 묻은 결과, ‘2명’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음
-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24.1%임
-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2.6%)’, ‘30대 후반(29.5%)’,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45.8%)’, ‘본인의 계층 하(2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N(미혼 청년)=810명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24.1**



1명 16.2

2명 46.5

3명 이상 13.2

성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가구소득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삶의만족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남자	17.4	100만원 이하	45.8	만족하지 않음	34.5
여자	32.6	101만원~200만원	21.5	보통	26.1
		201만원~300만원	24.3	만족함	17.7
		301만원~400만원	22.0		
		401만원~500만원	24.4		
		501만원~600만원	19.2		
		601만원~700만원	28.9		
		701만원 이상	23.9		
		잘 모름	24.6		
연령(5세)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본인의계층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19세-24세	22.8			상	22.0
25세-29세	25.0			중	19.7
30세-34세	23.4			하	27.5
35세-39세	29.5				

## (5) 결혼 비용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및 실태

### 미혼 청년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 자금, “1억 36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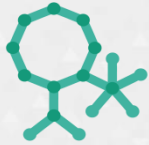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 미혼청년이 생각하는 적절한 결혼자금은 1억 3615만원이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자금 평균은 남자가 1억 6289만원으로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본인의 계층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억 536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미혼청년이 응답한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평균 비율은 26.7%이며, 도움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남자가 29.1%로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 수록 부모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의 비율이 높음
- 기혼청년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비율의 평균은 39.3%로, 미혼청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임
- 기혼청년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은 비율은 미혼청년의 경향과 비슷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본인의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음

#### 미혼 청년

Base=미혼인 청년	적절한 결혼자금 평균(만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도 평균(%)
▣ 전체 ▣	13615.8	26.7
<b>성별</b>		
남자	16289.7	29.1
여자	10265.3	23.6
<b>본인의계층</b>		
상	15362.7	30.3
중	13289.0	28.9
하	13519.0	24.6

#### 기혼 청년

Base=기혼인 청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은 정도 평균 (%)
▣ 전체 ▣	39.3
<b>성별</b>	
남자	41.0
여자	37.9
<b>본인의계층</b>	
상	39.8
중	39.5
하	39.1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IV



# 조사결과 분석 : 중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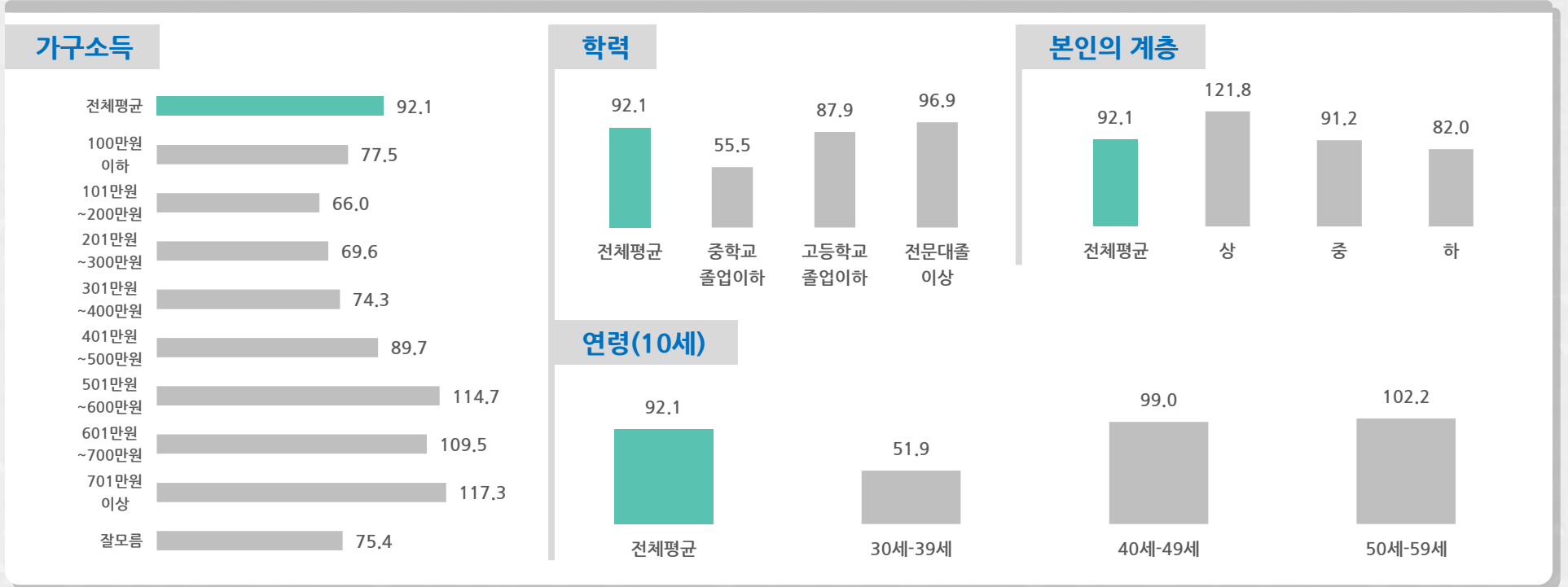
- 1) 월평균 자녀 교육비
- 2) 자녀 학령기 때의 가정 분위기 : 전체
  - 2)-1. 자녀 학령기 때의 가정 분위기 : 응답자 특성별
- 3)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 : 공적연금
- 4)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 : 사적연금
- 5) 중장년의 퇴직에 대한 인식
- 6) 의료접근성 및 건강

# (1) 월평균 자녀 교육비

## 중장년의 월평균 자녀 교육비, “92.1만원”

- 월평균 자녀 교육비는 92.1만원임
- 월평균 자녀 교육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50대 102.2만원, 전문대졸 이상 96.9만원)
- 고소득층인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 가구에서 월평균 자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음(701만원 이상 117.3만원)
-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월평균 자녀 교육비가 높음(상 121.8만원)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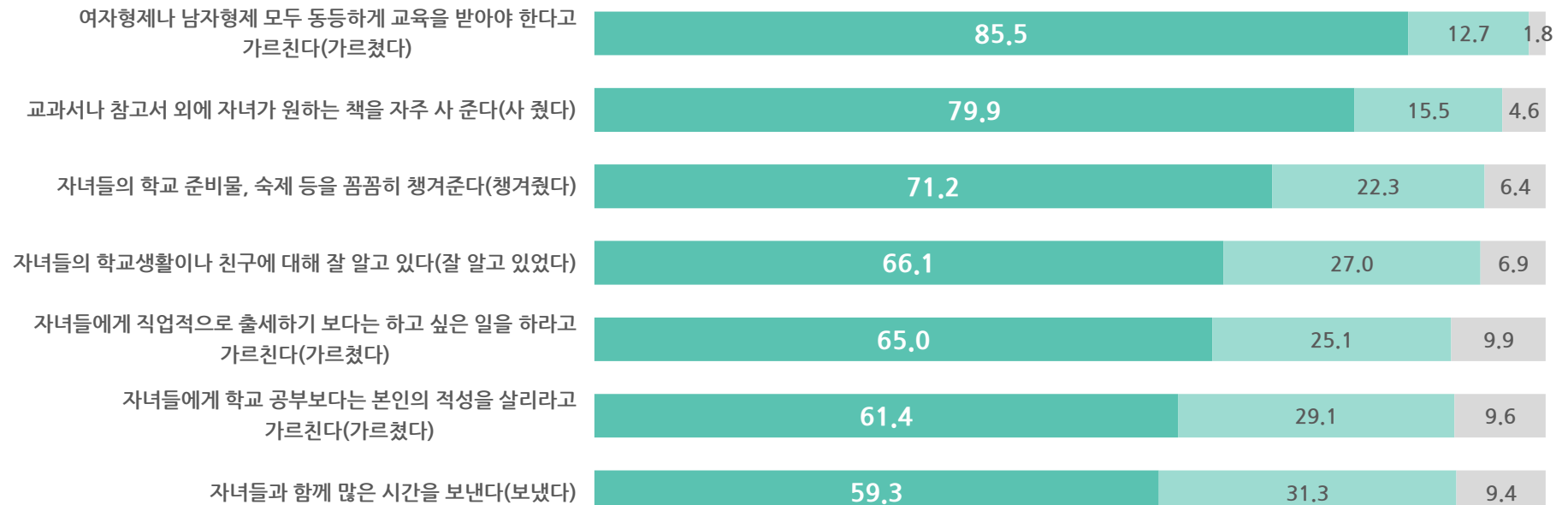
## (2) 자녀 학령기 때의 가정 분위기 : 전체

###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85.5%

-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중장년에게 자녀 학령기 때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묻은 결과,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응답이 85.5%로 가장 높음
- 그 외,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준다(79.9%)’, ‘자녀들의 학교 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준다(71.2%)’,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66.1%)’ 등의 순임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N(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장년)=1,301명  
(단위 : %)



## (2)-1. 자녀 학령기 때의 가정 분위기 : 응답자 특성별

-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자녀들의 학교 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준다’,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들에게 직업적으로 출세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친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내용은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임
-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 준다’는 항목과 ‘자녀에게 학교 공부보다는 본인의 적성을 살리라고 가르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단위 : %)

내용	그렇다 (매우+대체로)	연령(10세)			학력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졸 이상
여자형제나 남자형제 모두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가르쳤다)	85.5	90.7	88.0	82.6	74.0	83.1	88.4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자녀가 원하는 책을 자주 사 준다(사 줬다)	79.9	75.9	83.7	77.6	63.4	77.1	83.3
자녀들의 학교 준비물, 숙제 등을 꼼꼼히 챙겨준다(챙겨줬다)	71.2	79.8	72.6	68.6	66.8	68.2	74.4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었다)	66.1	72.4	67.6	63.8	59.6	62.5	69.9
자녀들에게 직업적으로 출세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가르친다(가르쳤다)	65.0	71.3	67.7	61.6	63.0	63.4	66.6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보다는 본인의 적성을 살리라고 가르친다(가르쳤다)	61.4	57.8	66.4	58.0	62.9	58.4	64.1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보냈다)	59.3	68.8	61.2	56.1	48.4	55.2	63.9

\* 그렇다(매우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값의 응답자 특성임

### (3)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 :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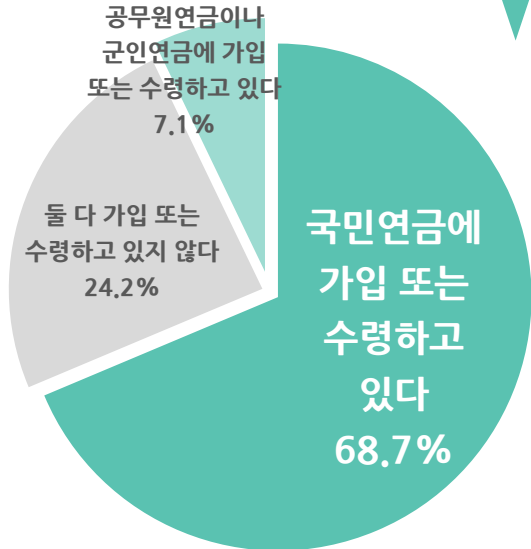
#### 중장년 10명 중 2명, “공적연금에 가입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

- 중장년의 공적연금 준비 정도에 대해 묻은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이 68.7%이며,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7.1%임
- 반면, ‘둘 다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4.2%임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가입하지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또한, ‘여자(27.4%)’, ‘경제활동 하지 않음(44.5%)’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N(중장년 전체)=1,881명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76.6만원  
특수직역연금 예상 수령액 203.0만원



Base=노년층 전체	사례수 (명)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	둘 다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지 않다
<b>성별</b>				
남자	(956)	70.8	8.1	21.1
여자	(925)	66.4	6.1	27.4
<b>연령(10세)</b>				
30세-39세	(415)	72.8	4.5	22.6
40세-49세	(756)	69.2	7.6	23.3
50세-59세	(710)	65.7	8.2	26.1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36)	56.4	0.0	43.6
고등학교졸업이하	(810)	66.9	4.5	28.6
전문대졸이상	(1,035)	70.4	9.4	20.1
<b>취업상태</b>				
일하고 있음	(1,415)	74.8	7.5	17.8
취업준비 및 구직 중	(131)	53.6	4.3	42.1
경제활동 하지 않음	(335)	48.6	6.9	44.5
<b>가구소득</b>				
100만원 이하	(63)	33.0	1.8	65.2
101만원~200만원	(135)	61.5	0.0	38.5
201만원~300만원	(255)	64.9	3.9	31.2
301만원~400만원	(356)	70.6	6.4	23.1
401만원~500만원	(401)	73.1	7.5	19.4
501만원~600만원	(270)	72.4	10.6	17.0
601만원~700만원	(141)	72.0	11.6	16.4
701만원 이상	(251)	69.1	10.1	20.8
잘모름	(8)	85.7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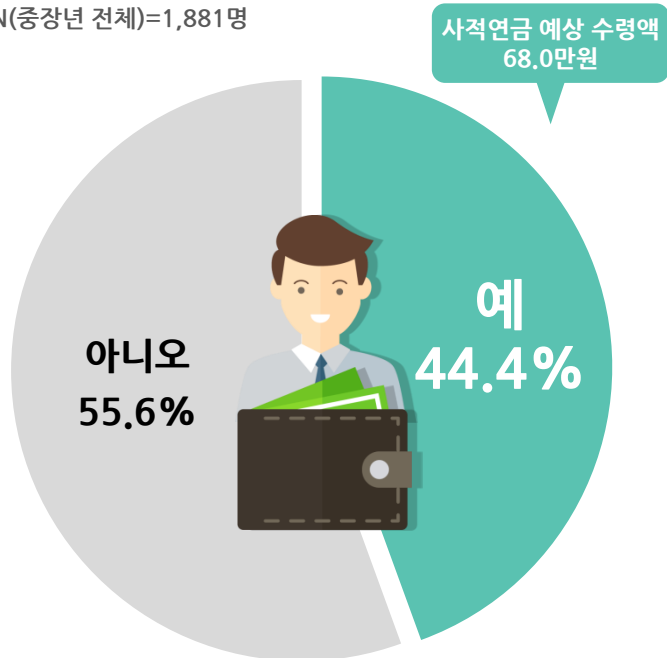
## (4) 중장년의 노후준비 실태 : 사적연금

### 중장년 10명 중 5명, “사적연금에 가입도 수령도 하고 있지 않아”

- 사적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사적연금에 가입도 수령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5.6%이며, ‘사적연금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임
- 사적연금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중장년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701만원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또한, ‘40대(46.9%)’, ‘일하고 있음(4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N(중장년 전체)=1,881명



Base=중장년 전체	사례수 (명)	예	아니오
<b>연령(10세)</b>			
30세-39세	(415)	45.0	55.0
40세-49세	(756)	46.9	53.1
50세-59세	(710)	41.5	58.5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36)	31.5	68.5
고등학교졸업이하	(810)	36.1	63.9
전문대졸이상	(1,035)	51.4	48.6
<b>취업상태</b>			
일하고 있음	(1,415)	46.7	53.3
취업준비 및 구직 중	(131)	37.9	62.1
경제활동 하지 않음	(335)	37.3	62.7
<b>가구소득</b>			
100만원 이하	(63)	8.8	91.2
101만원~200만원	(135)	27.1	72.9
201만원~300만원	(255)	34.7	65.3
301만원~400만원	(356)	44.4	55.6
401만원~500만원	(401)	44.2	55.8
501만원~600만원	(270)	45.0	55.0
601만원~700만원	(141)	64.0	36.0
701만원 이상	(251)	61.3	38.7
잘모름	(8)	42.5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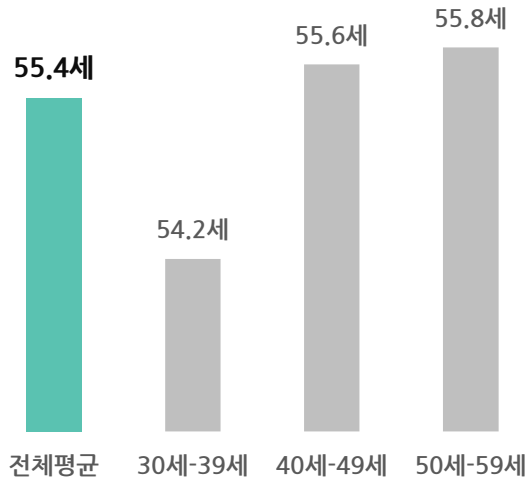
## (5) 중장년의 퇴직에 대한 인식

### 실제 퇴직 연령 “55.4세” <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 연령 “63.0세”

- 실제 퇴직 연령의 평균은 ‘55.4세’ 이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 연령은 ‘63.0세’임
- 실제 퇴직 연령에 대한 응답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 연령의 응답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 연령에 대해 높게 응답하는 경향임
- 퇴직 시, ‘경제적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높음
- 퇴직 시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늘어난 여가시간을 관리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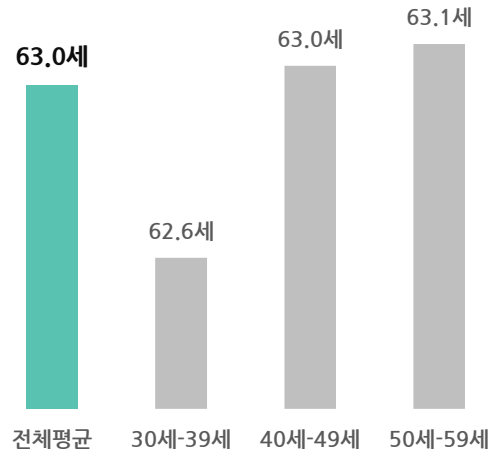
#### 실제 퇴직 연령

N(중장년 전체)=1,8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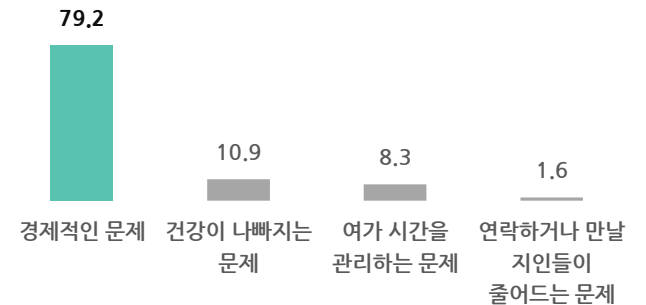
####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퇴직 연령

N(중장년 전체)=1,881명



#### 퇴직 시 걱정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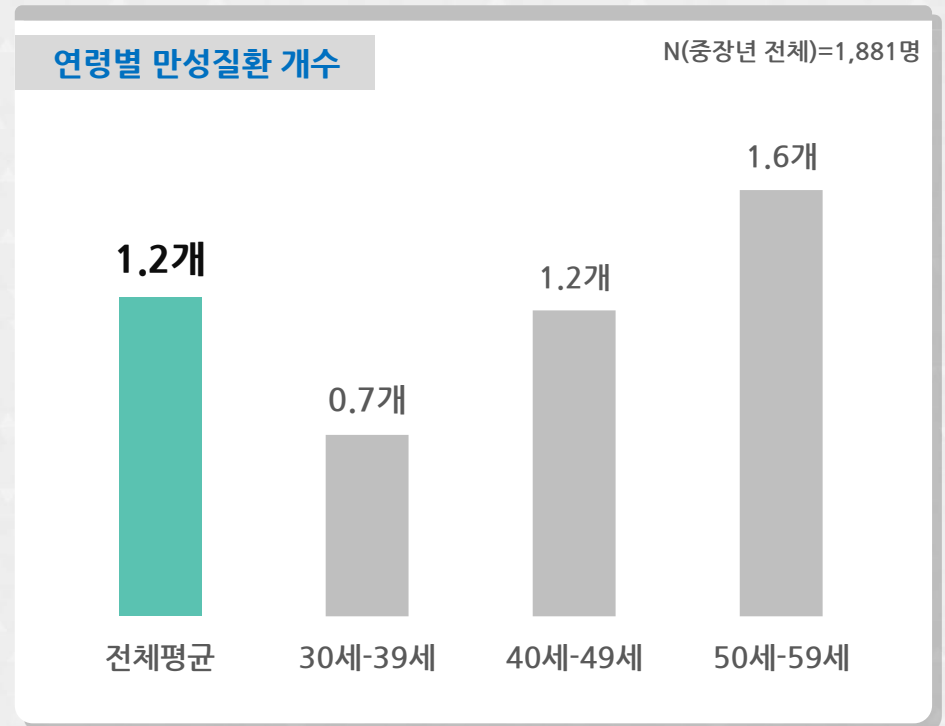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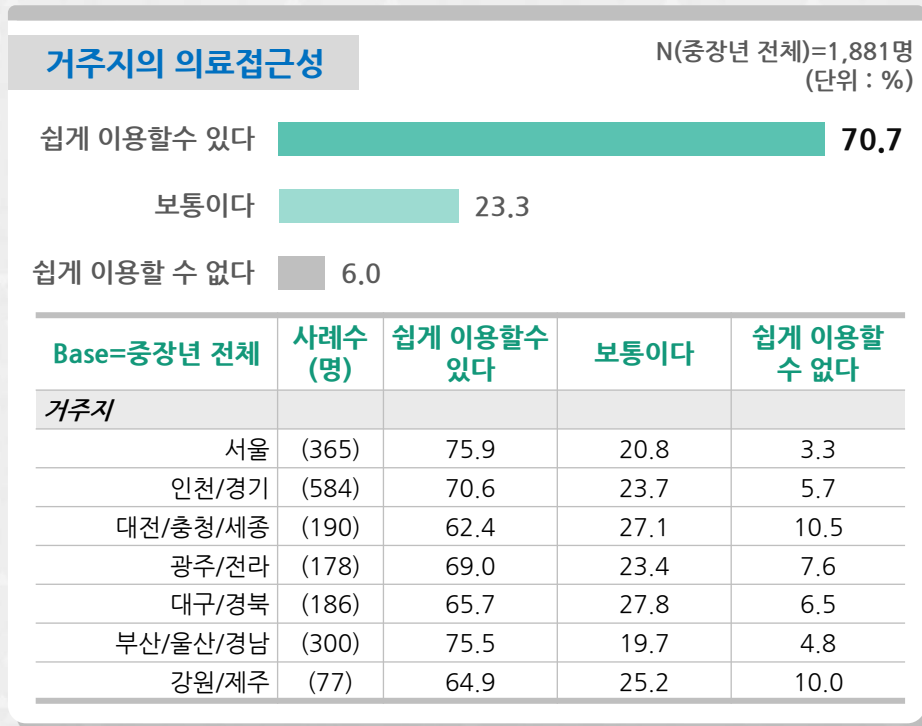
N(중장년 전체)=1,881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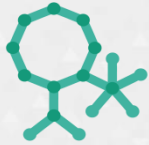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연령(10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이 나빠지는 문제	여가 시간을 관리하는 문제	연락하거나 만날 지인들이 줄어드는 문제
30세-39세	86.0	8.4	4.9	0.8
40세-49세	79.9	11.8	6.8	1.6
50세-59세	74.5	11.5	11.9	2.2

## 중장년 10명 중 7명, “의료시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거주지의 의료접근성에 대해 묻은 결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70.7%임
- ‘쉽게 이용할 수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서울(75.9%)’, ‘부산/울산/경남(7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쉽게 이용할 수 없다(별로+전혀)’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10.5%)’, ‘강원/제주(1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중장년층의 경우,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평균 개수는 1.2개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V



# 조사결과 분석 : 노년기

- 1) 구직과정 시 실패경험 및 실패이유
- 2) 노년기의 노후준비 실태 : 공적연금
- 3) 노년기의 노후준비 실태 : 사적연금
- 4) 의료접근성 및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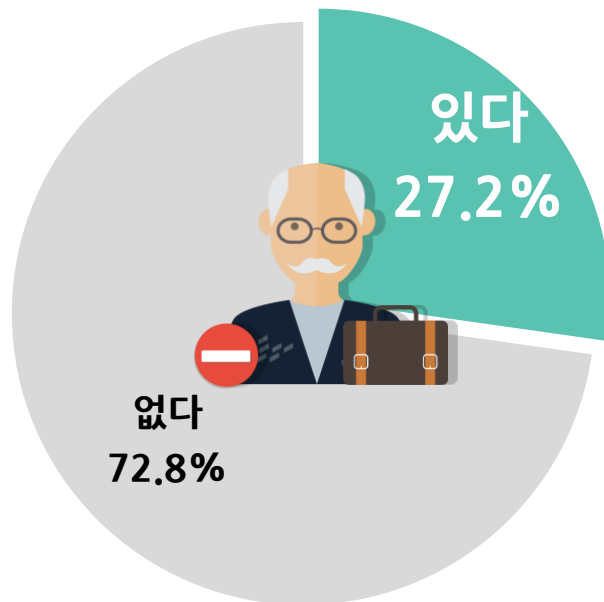
# (1) 구직과정 시 실패경험 및 실패이유

## 구직 과정 실패의 주된 이유, “연령” 73.0%

- 구직 과정 시 실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높고, ‘있다’는 응답이 27.2%임
- 구직 과정 실패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구직 실패의 주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연령’이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높고, ‘직업 능력 부족(24.2%)’, ‘일자리 얻을 기회가 없어서(23.4%)’, ‘인맥/배경 미흡(20.1%)’, ‘학력(13.2%)’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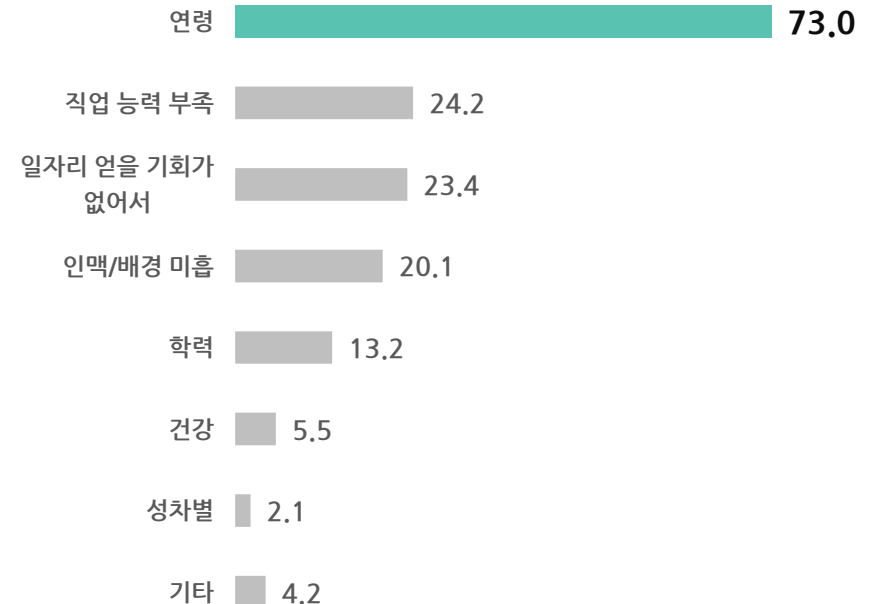
### 구직과정 시 실패경험

N(노년층 전체)=588명



### 구직 실패의 주된 이유(중복응답)

N(최근 구직 실패 경험 있음)=160명  
(단위 : %)





## (2) 노년기의 노후준비 실태 : 공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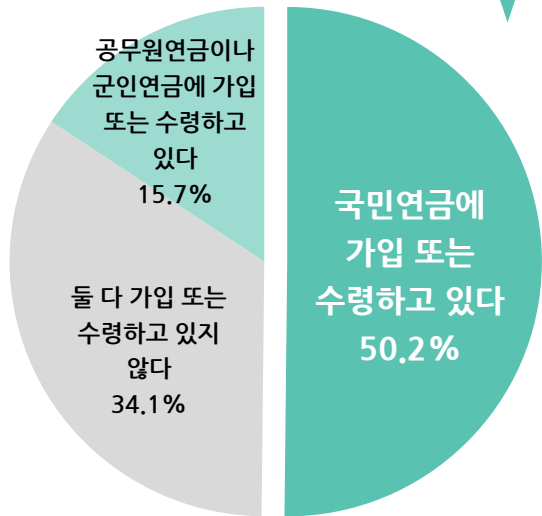
### 노년층 10명 중 3명, “공적연금에 가입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

- 노년층의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이며,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15.7%임
- 반면, ‘둘 다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4.1%임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가입하지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또한, ‘여자(45.7%)’, ‘경제활동 하지 않음(42.7%)’,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64.6%)’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N(노년층 전체)=588명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55.5만원  
특수직역연금 예상 수령액 265.3만원



Base=노년층 전체	사례수 (명)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	둘 다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지 않다
<b>성별</b>				
남자	(280)	57.1	21.6	21.3
여자	(308)	43.9	10.4	45.7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115)	39.2	3.9	56.9
고등학교졸업이하	(336)	56.7	14.8	28.6
전문대졸이상	(137)	43.5	28.1	28.4
<b>취업상태</b>				
일하고 있음	(302)	63.4	10.9	25.7
취업준비 및 구직 중	(19)	47.0	6.1	46.9
경제활동 하지 않음	(267)	35.5	21.8	42.7
<b>가구소득</b>				
100만원 이하	(75)	35.4	0.0	64.6
101만원~200만원	(105)	48.1	2.0	49.9
201만원~300만원	(107)	58.1	19.6	22.3
301만원~400만원	(114)	49.6	23.3	27.1
401만원~500만원	(60)	40.9	24.2	35.0
501만원~600만원	(43)	69.6	12.5	17.9
601만원~700만원	(29)	42.8	42.1	15.1
701만원 이상	(53)	58.4	21.0	20.6
잘모름	(3)	66.2	0.0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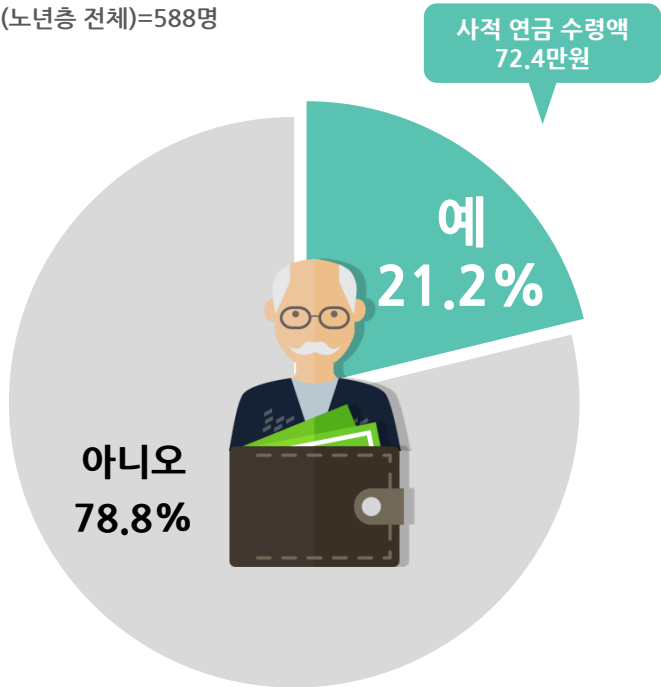
### (3) 노년기의 노후준비 실태 : 사적연금

#### 중장년 10명 중 8명, “사적연금에 가입도 수령도 하고 있지 않아”

- 사적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사적연금에 가입도 수령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8.8%이며, ‘사적연금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응답은 21.2%임
- ‘사적연금에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다’는 노년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또한, ‘일하고 있음(23.4%)’,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5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N(노년층 전체)=588명



Base=노년층 전체	사례수 (명)	예	아니오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115)	4.8	95.2
고등학교졸업이하	(336)	22.7	77.3
전문대졸이상	(137)	31.3	68.7
<b>취업상태</b>			
일하고 있음	(302)	23.4	76.6
취업준비 및 구직 중	(19)	5.8	94.2
경제활동 하지 않음	(267)	19.8	80.2
<b>가구소득</b>			
100만원 이하	(75)	5.9	94.1
101만원~200만원	(105)	9.5	90.5
201만원~300만원	(107)	14.4	85.6
301만원~400만원	(114)	25.2	74.8
401만원~500만원	(60)	23.9	76.1
501만원~600만원	(43)	33.1	66.9
601만원~700만원	(29)	26.9	73.1
701만원 이상	(53)	54.3	45.7
잘 모름	(3)	33.4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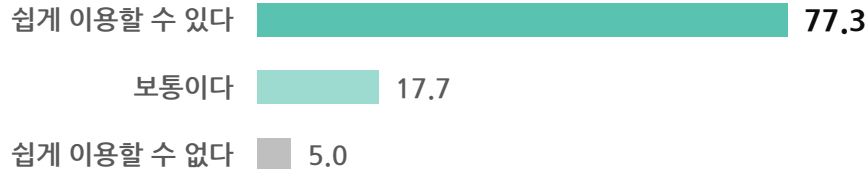
## (4) 의료접근성 및 건강

### 노년층 10명 중 7명, “의료시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거주지의 의료접근성에 대해 묻은 결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77.3%임
- ‘쉽게 이용할 수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8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쉽게 이용할 수 없다(별로+전혀)’는 응답은 ‘광주/전라(1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노년층의 경우,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평균 수는 1.8개이며,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가 평균 2.3개로 상대적으로 많음

#### 거주지의 의료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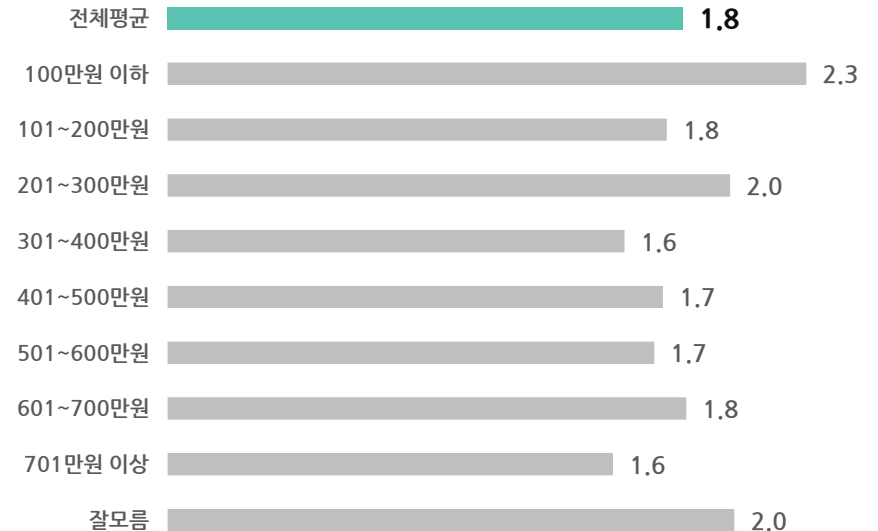
N(노년층 전체)=588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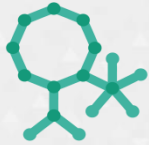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Base=중장년 전체	사례수 (명)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통이다	쉽게 이용할 수 없다
<b>거주지</b>				
서울	(119)	82.2	15.9	1.9
인천/경기	(147)	71.7	21.6	6.7
대전/충청/세종	(61)	84.1	14.1	1.8
광주/전라	(68)	69.1	19.4	11.5
대구/경북	(66)	73.4	18.3	8.3
부산/울산/경남	(99)	85.4	13.0	1.6
강원/제주	(28)	71.9	24.1	4.0

#### 가구소득별 만성질환 개수

N(노년층 전체)=588명  
(단위 : 개)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VI



# 조사결과 분석 : 정치적 기회 실태 및 인식

- 1) 2012년 총선 투표 여부 및 투표 안 한 이유
- 2) 2012년 대선 투표 여부 및 투표 안 한 이유
- 3) 정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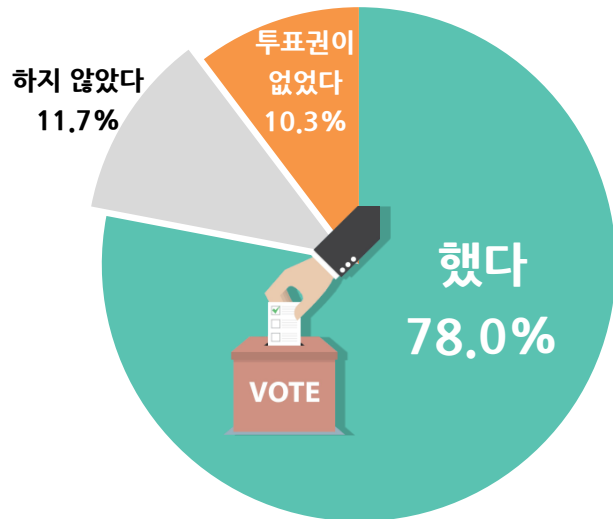
# (1) 2012년 총선 투표 여부 및 투표 안 한 이유

## 2012 총선 투표 안 한 이유,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 39.6%

- 2012년 총선에서 투표를 안했다는 응답자에게 투표를 안 한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38.4%)’, ‘일 때문에(18.4%)’ 순임
- 2012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안 했다는 응답은 20대에서 가장 높은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30대, ‘일 때문에’라는 응답은 20대와 60세-74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분석하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아질수록, ‘일 때문에’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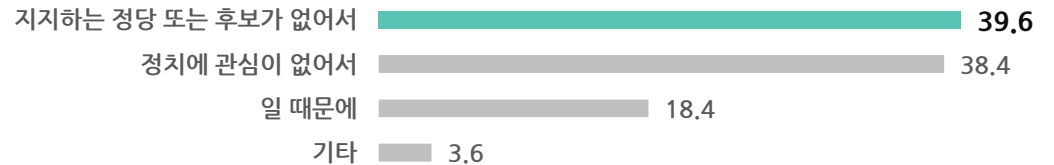
### 2012 총선 투표 여부

N(전체)=3,500명



### 2012년 총선 투표 안한 이유

N(총선 투표 안함)=409명  
(단위 : %)



Base=2012년 총선 투표안함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일 때문에	기타
<b>연령(10세)</b>				
19세-29세	46.8	24.2	24.6	4.4
30세-39세	34.1	46.9	16.7	2.2
40세-49세	43.7	35.5	18.7	2.1
50세-59세	40.6	42.1	11.9	5.4
60세-74세	26.3	44.4	23.4	5.9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31.2	56.4	6.0	6.3
고등학교졸업이하	41.6	40.0	14.9	3.5
전문대졸이상	38.5	35.4	22.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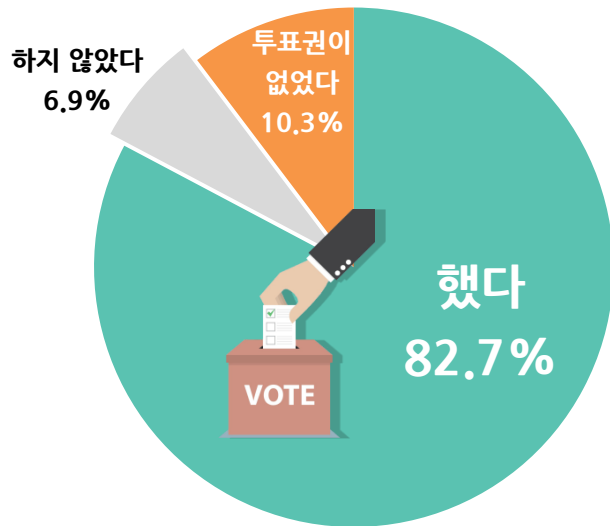
## (2) 2012년 대선 투표 여부 및 투표 안 한 이유

### 2012 대선 투표 안 한 이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39.1%

- 2012년 대선에서 투표를 안 했다는 응답자에게 투표를 안 한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고,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34.5%)’, ‘일 때문에(19.9%)’ 순임
- 2012 대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 했다는 응답은 60대에서 가장 높은 반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40대, ‘일 때문에’라는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분석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아질수록,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일 때문에’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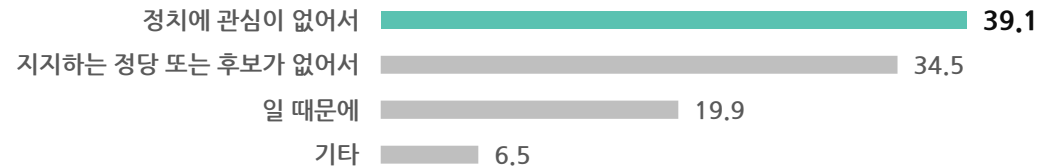
#### 2012 대선 투표 여부

N(전체)=3,500명



#### 2012년 대선 투표 안한 이유

N(대선 투표 안함)=243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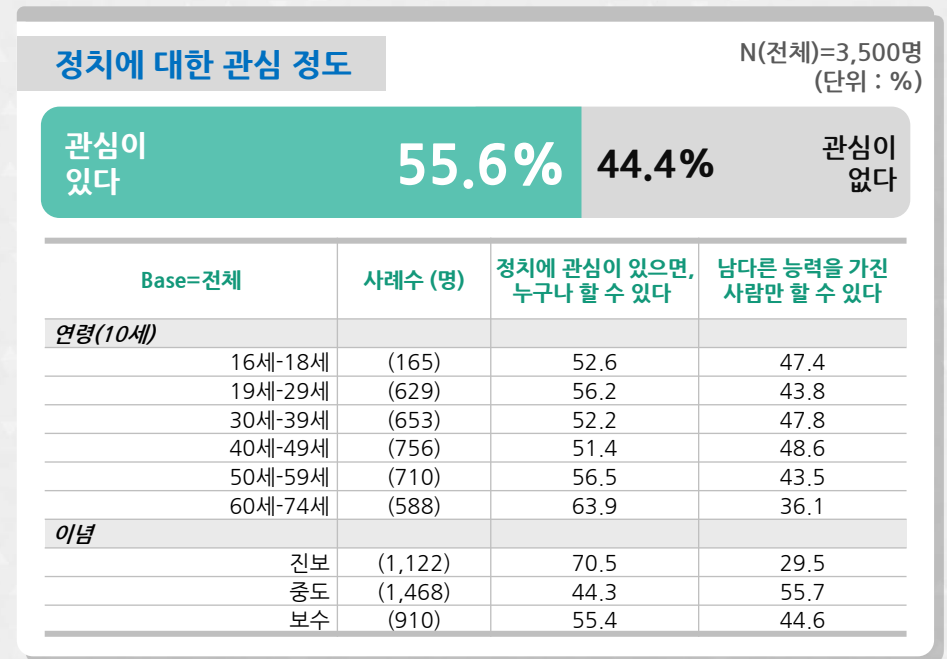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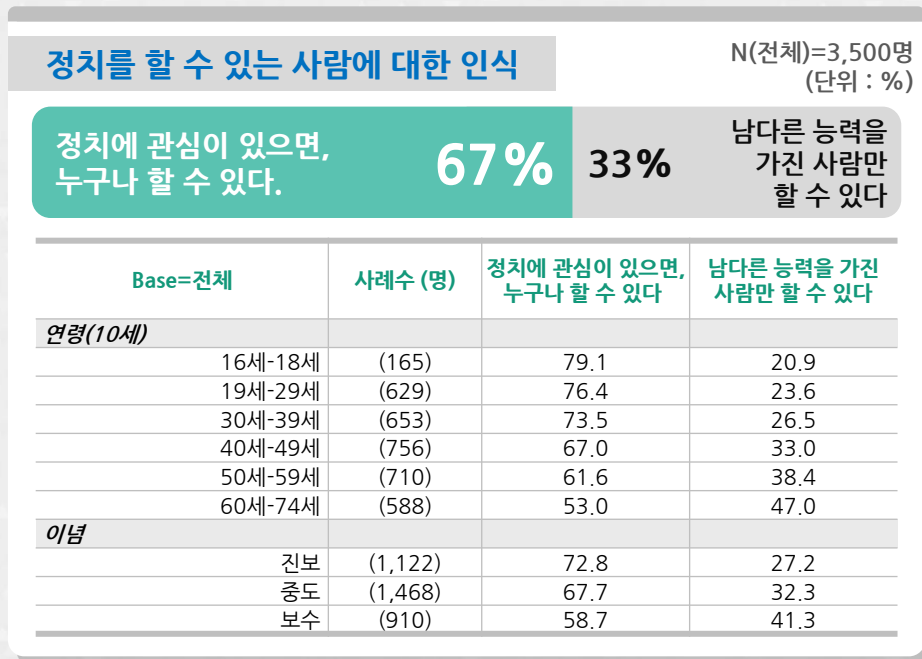


Base=2012년 대선 투표안함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없어서	일 때문에	기타
<b>연령(10세)</b>				
19세-29세	31.9	43.7	14.9	9.5
30세-39세	45.9	24.1	22.8	7.2
40세-49세	27.3	47.1	21.9	3.7
50세-59세	46.8	26.7	21.6	4.8
60세-74세	50.1	27.1	13.6	9.1
<b>학력</b>				
중학교졸업이하	69.1	15.4	7.8	7.6
고등학교졸업이하	38.8	38.8	17.5	4.8
전문대졸이상	35.5	32.5	23.9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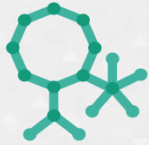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 (3) 정치에 대한 인식

####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67.0%, “정치에 관심 있다” 55.6%

-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은 결과,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응답이 67.0%이며, ‘남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응답이 33.0%임
-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은 결과, ‘관심이 있다(대단히 많다+있는 편이다)’는 응답이 55.6%이며, ‘관심이 없다(별로 없다+전혀 없다)’는 응답은 44.4%임
-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60세-74세(63.9%)’, ‘진보(7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조사결과 분석 :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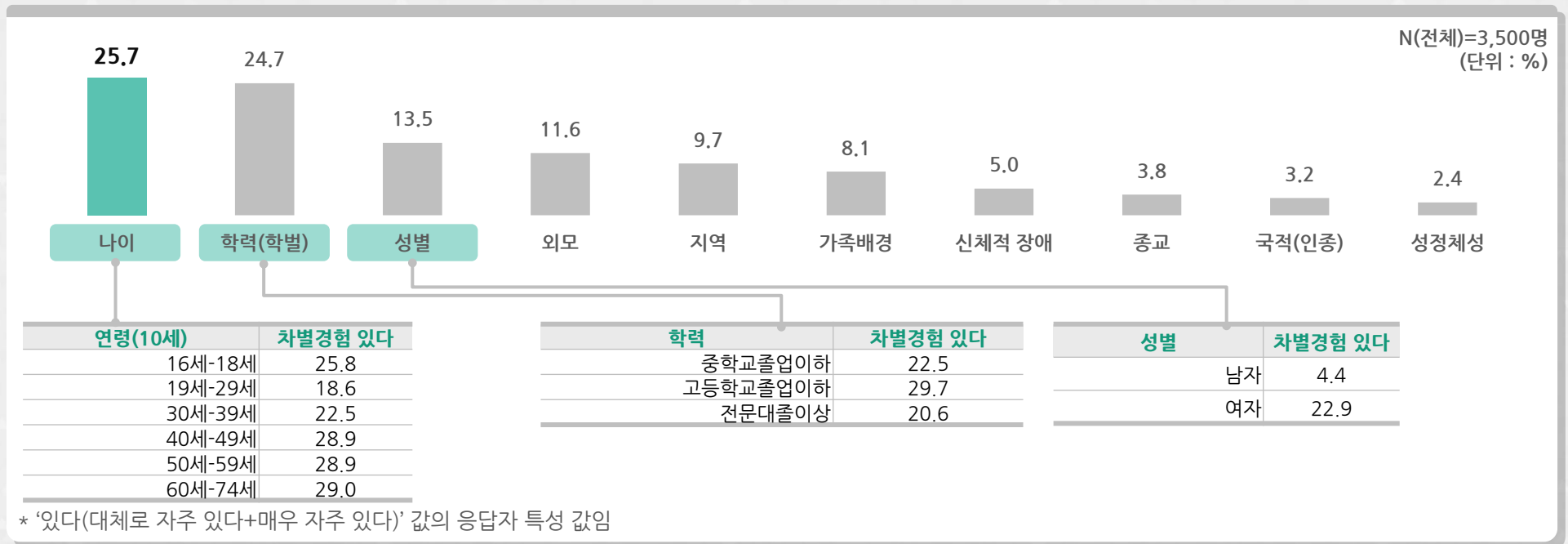
- 1) 차별 및 불이익 경험
- 2) 주관적 계층 인식
- 3) 한국사회 기회 균등 수준 인식
- 4) -1. 개인 노력을 통한 성취 인식 : 전체
- 4) -2. 개인 노력을 통한 성취 인식 : 응답자 특성별
- 5) 개인 성공의 조건
- 6)-1. 분야별 기회 불평등 심각성 : 전체
- 6)-2. 분야별 기회 불평등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
- 7)-1. 분야별 기회 불평등 용인 정도 : 전체
- 7)-2. 분야별 기회 불평등 용인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1) 차별 및 불이익 경험

## “나이” 때문에 차별 받았다는 응답 가장 높아

- 차별 및 불이익 경험에 대해 묻은 결과,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대체로+매우)’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고, ‘학력(학벌)(24.7%)’, ‘성별(13.5%)’ 등의 순임
- ‘나이’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학력(학벌)’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29.7%)’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자(22.9%)’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2) 주관적 계층 의식

### “전문대졸 이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과 자녀의 계층 소속감 높게 평가

- 15세 무렵의 계층, 현재 본인의 계층, 자녀가 현재 자신의 나이가 됐을 경우의 예상 계층에 대해 묻은 결과, 과거보다는 현재의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본인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보다 높은 계층에 속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 세가지 경우의 계층 소속감에 대해 ‘전문대졸 이상’의 응답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소속 계층을 높게 평가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또는 자녀의 소속 계층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최상(10)

4.2

15세 무렵 본인의 계층 평균

4.6

현재 본인의 계층 평균

5.8

본인의 자녀의 예상 계층 평균

N(전체)=3,500명  
(단위 : 점)

최하(1)

내용	15세 무렵 본인의 계층 평균	현재 본인의 계층 평균	본인의 자녀의 예상 계층 평균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4.1	4.4	5.6
고등학교졸업이하	4.0	4.4	5.8
전문대졸이상	4.4	4.8	5.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7	3.2	5.0
101만원~200만원	3.9	3.8	5.3
201만원~300만원	3.9	4.0	5.6
301만원~400만원	4.0	4.4	5.7
401만원~500만원	4.3	4.8	5.9
501만원~600만원	4.4	5.0	6.1
601만원~700만원	4.5	5.3	6.3
701만원 이상	4.8	6.0	6.6
잘모름	4.3	4.2	5.3

### (3) 한국사회 기회 균등 수준 인식

#### 10명 중 6명, “한국사회의 개인 성취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

- 한국 사회가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인지에 대해 묻은 결과, ‘공평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62.1%이며, ‘공평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7.3%임
- 2015년 대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은 0.5%p 감소하였으나, 전체 응답 평균은 비슷한 수준임
- ‘만16세-만18세’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최종학력에서 ‘전문대졸 이상’, 취업상태에서 ‘취업준비 및 구직 중’,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 ‘가구소득 201~300만원’에서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 공평하다 ■ 보통이다 ■ 공평하지 않다



연령(10세)	공평하지 않다	종사상지위	공평하지 않다	가구소득	공평하지 않다
16세-18세	61.1	정규직	60.7	100만원 이하	62.9
19세-29세	69.1	비정규직	68.5	101만원~200만원	64.1
30세-39세	66.2	비임금근로자	57.7	201만원~300만원	66.0
40세-49세	60.6	무급가족종사자	63.3	301만원~400만원	63.6
50세-59세	58.9	미취업자	62.6	401만원~500만원	61.7
60세-74세	56.2			501만원~600만원	62.4
				601만원~700만원	58.4
				701만원 이상	54.4
				잘 모름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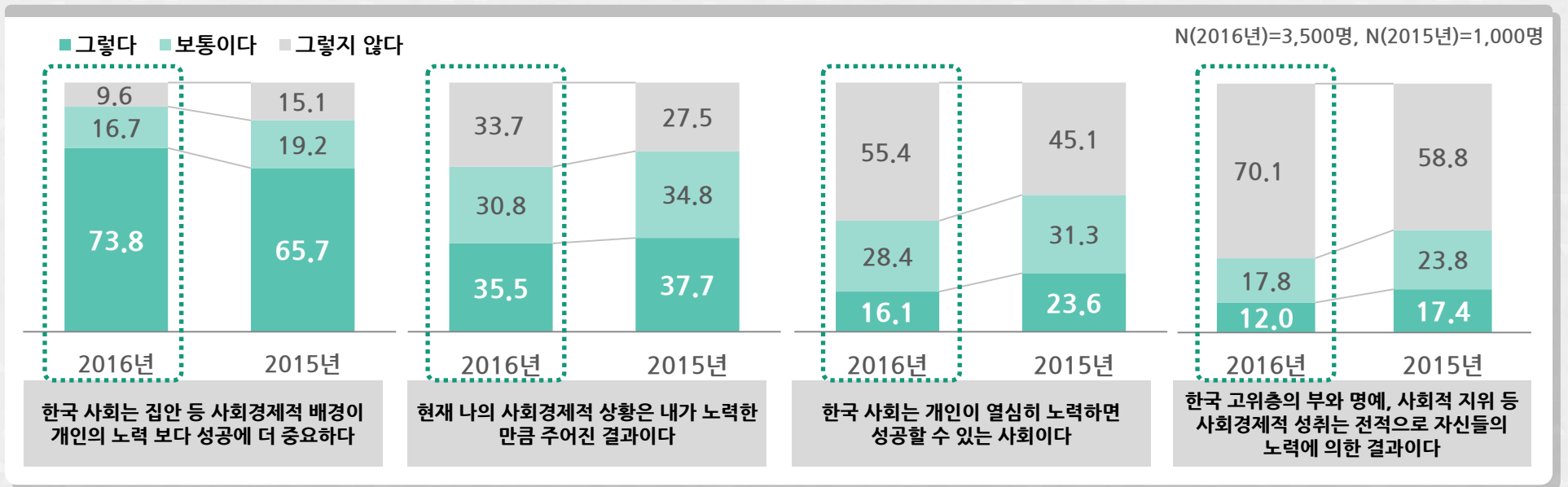
학력	공평하지 않다	취업상태	공평하지 않다
중학교졸업이하	60.3	일하고 있음	61.8
고등학교졸업이하	59.6	취업준비 및 구직 중	68.8
전문대졸이상	64.6	경제활동 하지 않음	59.8

## (4)-1. 개인 노력을 통한 성취 인식 : 전체

###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취 가능성 평가, “작년 대비 부정적인 의견 늘어나”

- 2016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고,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35.5%)’,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16.1%)’, ‘한국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12.0%)’ 순임
-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 해보면, ‘한국 고위층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1.3%p 증가하였고,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3%p 증가, ‘현재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2%p 증가함
- 반면,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8.1%p 증가함

(단위 : %)



## (4)-2. 개인 노력을 통한 성취 인식 : 응답자 특성별

-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 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대(77.4%)’, ‘가구소득 401만원~500만원(76.5%) 및 501만원~600만원(7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38.3%)’,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4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16세-18세를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2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 고위층의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74세(21.2%)’,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1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내용	그렇다 (매우+ 대체로)	연령(10세)						학력			가구소득							잘모름	
		16세- 18세	19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74세	중학교 졸업이 하	고등학 교졸업 이하	전문대 졸이상	100만 원 이하	101~ 200 만원	201~ 300 만원	301~ 400 만원	401~ 500 만원	501~ 600 만원	601~ 700 만원		701 만원 이상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 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	73.8	65.5	71.7	70.8	77.4	75.7	74.7	65.6	73.4	75.7	69.6	71.0	74.8	73.5	76.5	76.5	72.4	72.6	67.3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결과이다	35.5	21.7	22.2	25.0	35.8	44.5	54.2	34.2	38.3	33.3	29.6	30.3	29.8	35.0	35.0	39.4	37.0	48.2	26.8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16.1	12.2	10.2	10.5	13.2	18.6	30.7	20.1	17.4	14.3	18.3	14.1	14.6	13.0	16.0	16.8	17.7	23.9	9.6
한국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12.0	13.4	9.8	8.3	8.7	13.1	21.2	17.9	13.2	9.9	18.0	10.8	12.0	9.2	11.3	11.0	12.8	17.1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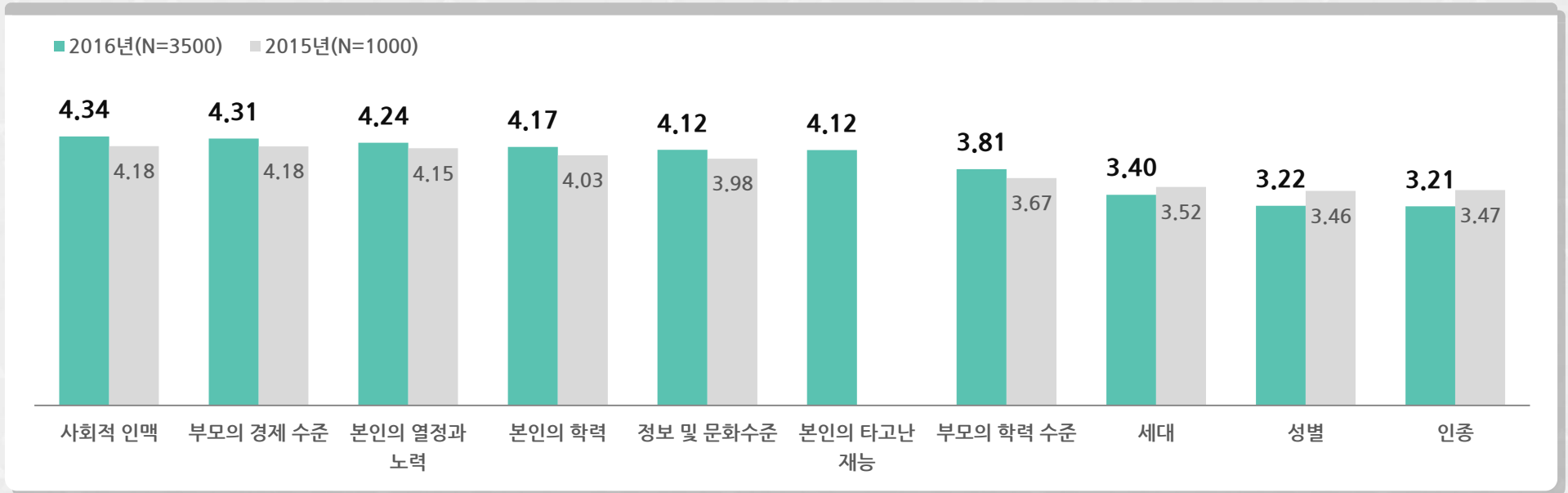
\* 그렇다(매우그렇다+대체로 그렇다) 값의 응답자 특성임

## (5) 개인 성공의 조건

### “사회적 인맥(평균 4.34점)”, 개인 성공에서 가장 중요

- 개인 성공의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사회적 인맥’이 중요하다는 응답(평균 4.34점)이 가장 높고, ‘부모의 경제 수준(평균 4.31점)’, ‘본인의 열정과 노력(평균 4.24점)’, ‘본인의 학력(평균 4.17점)’ 등의 순임
- 반면, 세대, 성별, 인종 등 귀속집단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의 성공의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15년과 비슷함
- 가족배경, 본인의 학력 및 열정과 노력, 타고난 재능, 사회자본(‘사회적 인맥’, ‘부모의 경제 수준’, ‘본인의 열정과 노력’, ‘본인의 학력’, ‘정보 및 문화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에 대한 중요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귀속집단(‘세대’, ‘성별’, ‘인종’)에 대한 중요도는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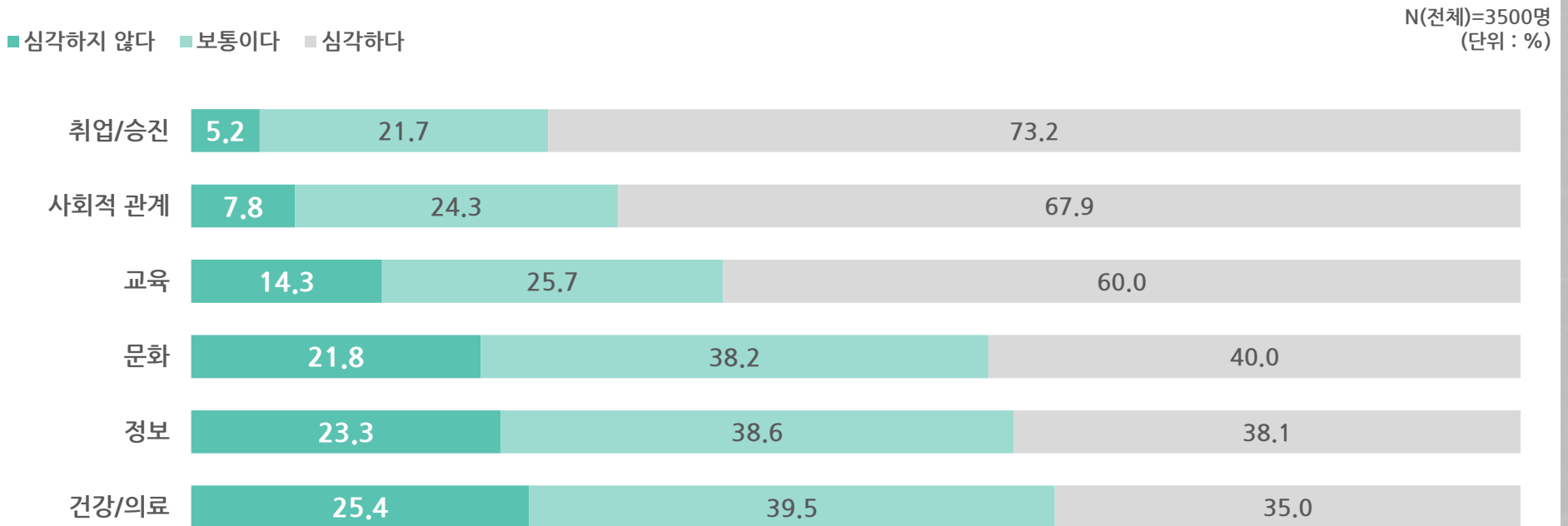
(단위 : 점)



## (6)-1. 분야별 기회 불평등 심각성 : 전체

### ‘취업/승진’에의 기회 불평등, “심각하다” 73.2%

- 분야별 기회 불평등의 심각 정도에 대해 묻은 결과, ‘취업/승진’에의 기회 불평등이 ‘심각하다(대체로+상당히+매우)’는 응답은 73.2%로 가장 높음.
- 그 외, ‘사회적 관계(67.9%)’, ‘교육(60.0%)’, ‘문화(40.0%)’, ‘정보(38.1%)’, ‘건강/의료(35.0%)’ 순임
- ‘취업/승진’, ‘사회적 관계’, ‘교육’ 분야에 대한 기회 불평등 정도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문화’, ‘정보’, ‘건강/의료’ 분야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 (6)-2. 분야별 기회 불평등 심각성 : 응답자 특성별

- 각 분야별 기회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다’라는 인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취업/승진’, ‘정보’ 분야의 기회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회적 관계’, ‘교육’, ‘건강/의료’ 분야의 기회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문화’ 분야의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는 ‘20대’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 별로는 ‘취업/승진’, ‘문화’ 분야의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육’,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201만원~300만원’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적 관계’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501-600만원’, ‘건강/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성은 ‘가구소득 401-5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내용	심각하다 (대체로 +상당히 +매우)	연령(10세)						학력			가구소득							잘모름	
		16세- 18세	19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74세	중학교 졸업이 하	고등학 교졸업 이하	전문대 졸이상	100만 원 이하	101~ 200 만원	201~ 300 만원	301~ 400 만원	401~ 500 만원	501~ 600 만원	601~ 700 만원		701 만원 이상
취업/승진의 기회 불평등	73.2	67.9	75.9	75.3	73.4	72.7	69.5	69.9	71.8	75.0	77.0	70.1	76.7	74.7	72.5	75.9	70.5	67.2	70.7
사회적 관계 기회 불평등	67.9	60.2	69.9	72.3	70.7	65.4	62.4	59.6	65.6	71.5	69.5	64.0	69.6	67.9	69.2	71.6	64.9	65.2	64.0
교육의 기회 불평등	60.0	46.3	63.3	66.2	59.9	57.2	56.8	53.9	58.4	62.6	59.1	55.1	63.4	61.8	59.6	60.8	58.2	59.4	53.1
문화 기회 불평등	40.0	37.7	53.4	51.0	39.6	30.2	26.5	34.7	36.1	44.5	45.1	40.0	40.7	40.5	39.0	42.4	32.8	39.1	40.4
정보 기회 불평등	38.1	37.6	49.1	49.3	37.5	27.8	27.4	34.4	33.6	42.8	38.7	35.6	42.2	37.8	38.8	38.8	33.0	35.1	44.6
건강/의료 기회 불평등	35.0	29.8	43.6	49.2	35.5	28.3	19.1	27.5	30.7	40.3	34.1	32.2	37.6	33.9	37.9	33.4	30.8	35.7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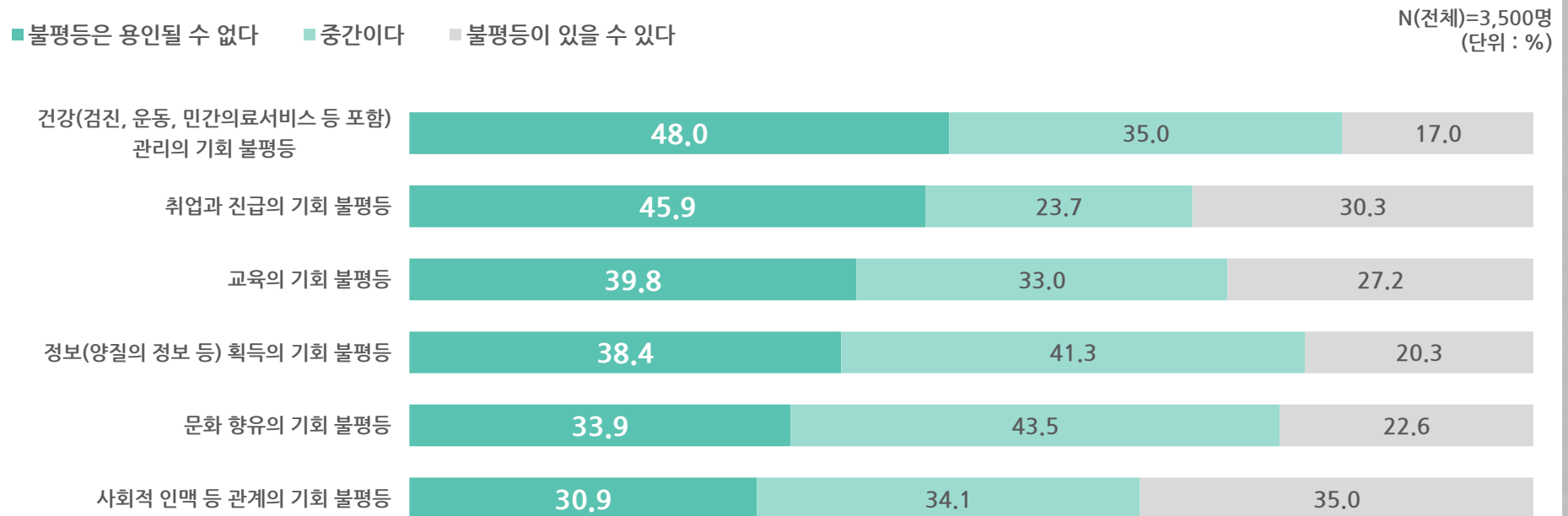
\* ‘심각하다(대체로+상당히+매우)’ 값의 응답자 특성임



## (7)-1. 분야별 기회 불평등 용인 정도 : 전체

### ‘건강 관리’ 기회 불평등, “용인 할 수 없다” 48.0%

-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용인 정도에 대해 묻은 결과, ‘건강 관리’ 분야에 대해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음
- 그 외, ‘취업과 진급의 기회 불평등(45.9%)’, ‘교육의 기회 불평등(39.8%)’, ‘정보 획득의 기회 불평등(38.4%)’, ‘문화 향유의 기회 불평등(33.9%)’, ‘사회적 인맥 등 관계의 기회 불평등(30.9%)’ 순임
-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은 ‘사회적 인맥 등 관계’영역이 35.0%로 가장 높고, ‘취업과 진급의 기회 불평등(30.3%)’, ‘교육의 기회 불평등(27.2%)’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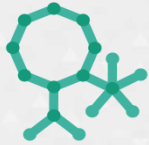
## (7)-2. 분야별 기회 불평등 용인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건강 관리’, ‘취업과 진급’, ‘교육’, ‘문화’ 분야의 기회 불평등이 ‘용인될 수 없다’는 응답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보’, ‘사회적 관계’의 기회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응답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건강 관리’, ‘취업과 진급’, ‘문화’ 분야의 기회 불평등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교육’, ‘정보’, ‘사회적 관계’에 대해 기회 불평등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전문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 별로는 ‘건강 관리’, ‘교육’, ‘정보’, ‘사회적 인맥’ 분야의 기회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301만원-4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과 진급’의 기회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601만원-7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문화’의 기회 불평등은 용인 될 수 없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 및 201만원-300만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내용	기회의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	연령(10세)						학력			가구소득							잘모름	
		16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74세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 졸업이상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만원 이상
건강 관리의 기회 불평등	48.0	47.8	59.1	47.8	49.9	42.6	40.7	43.5	46.8	50.0	43.6	46.2	46.8	51.8	46.7	45.9	49.6	50.6	46.2
취업과 진급의 기회 불평등	45.9	48.5	55.7	48.0	46.4	41.5	37.2	43.5	44.4	47.8	41.1	40.1	46.2	48.3	46.1	45.3	49.1	47.7	45.4
교육의 기회 불평등	39.8	36.9	47.6	41.9	44.0	33.6	31.8	37.2	36.7	42.9	38.9	37.9	38.4	42.2	40.5	36.7	42.1	41.3	36.1
정보 획득의 기회 불평등	38.4	37.5	40.7	37.6	41.2	37.1	35.2	37.4	36.8	40.0	38.0	37.2	37.6	42.0	37.9	38.5	36.4	37.9	33.7
문화 향유의 기회 불평등	33.9	36.6	41.5	33.3	35.5	31.7	26.4	31.9	32.1	35.9	29.1	29.4	36.4	33.8	34.7	34.3	32.5	36.5	29.9
사회적 인맥 등 관계의 기회 불평등	30.9	31.3	30.3	30.1	33.8	30.9	28.6	30.6	30.0	31.8	29.7	30.1	31.3	35.0	30.9	26.2	32.9	30.5	23.1

\* ‘기회의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다’ 값의 응답자 특성임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CHAPTER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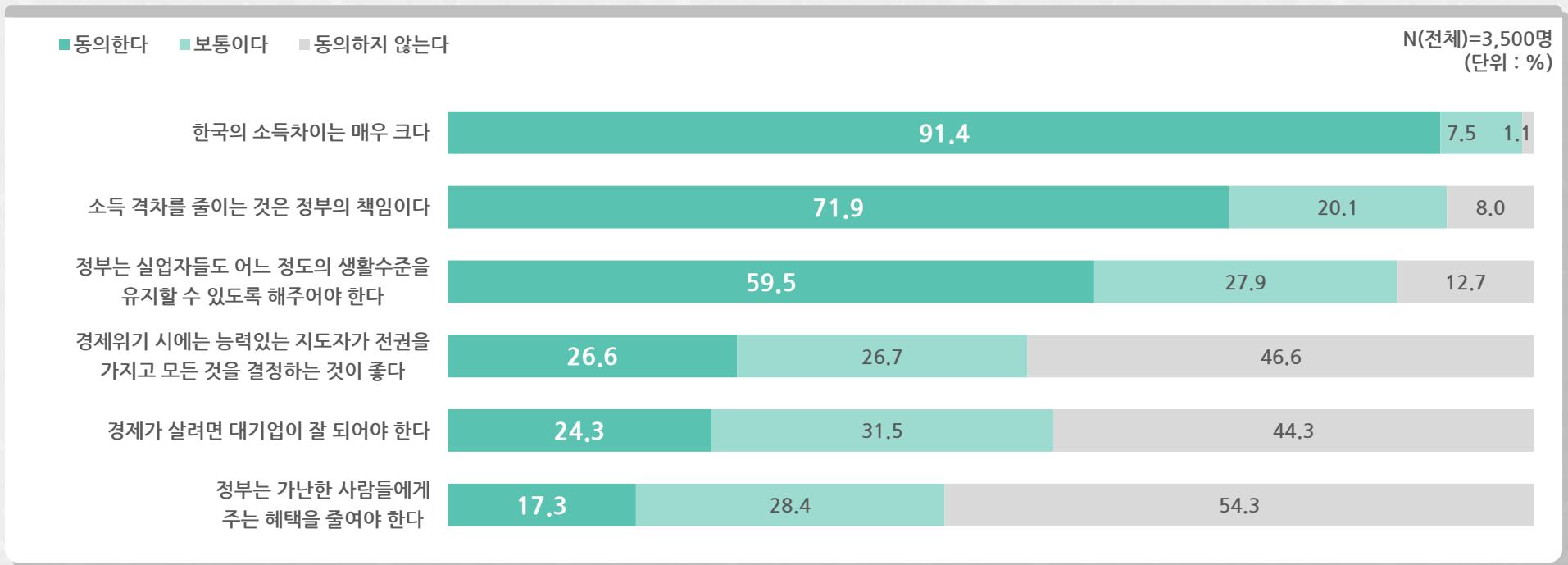
# 조사결과 분석 :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1)-1.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전체
- 1)-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
- 2) 세금 수준에 대한 인식
- 3) 비정규직 및 경찰 응대에 대한 인식
- 4) 법원/수명 불평등에 대한 인식
- 5) 안전에 대한 실태 및 인식

# (1)-1.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전체

## 10명 중 9명, “한국의 소득차이 매우 커”

- ‘한국의 소득차이는 매우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1.4%임
- 그 외,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71.9%)’,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59.5%)’, ‘경제위기 시에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26.6%)’,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24.3%)’,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17.3%)’ 순임
-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소득차이가 매우 크다는데 동의함



## (1)-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응답자 특성별

- ‘한국의 소득차이는 매우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74세’, ‘가구소득 401만원-5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가구소득 501만원-6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16세-18세’,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 101만원-2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제위기 시에 능력있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와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0세-74세’,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내용	동의한다 (매우+대체로)	연령(10세)						학력			가구소득							잘모름	
		16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74세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이상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만원 이상
한국의 소득차이는 매우 크다	91.4	82.1	88.3	90.5	93.7	91.7	94.7	88.4	91.3	92.0	87.8	92.2	91.1	92.6	93.6	90.8	89.2	90.4	86.3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71.9	62.6	75.1	70.9	73.8	73.4	67.7	69.3	69.7	74.3	67.7	71.6	73.1	74.0	72.7	74.5	72.7	64.2	74.6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59.5	70.0	65.9	55.0	61.9	56.4	55.4	65.7	58.0	59.6	64.1	65.4	63.6	56.8	58.8	57.5	56.9	54.5	66.5
경제위기 시에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26.6	18.2	14.3	17.5	25.9	34.6	43.6	25.0	32.8	21.4	31.6	25.3	26.9	27.1	25.9	26.3	23.6	29.3	18.2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24.3	20.3	16.8	21.0	19.1	26.6	40.7	26.5	28.9	19.8	26.6	24.0	23.4	22.8	23.9	24.9	25.3	28.0	15.1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17.3	15.9	16.4	17.7	14.9	18.2	20.2	17.4	17.8	16.9	15.6	15.8	17.0	16.2	15.8	19.7	15.7	22.9	12.2

\* ‘동의한다(매우+대체로)’값의 응답자 특성임

## (2) 세금 수준에 대한 인식

### 10명 중 8명, “현재 고소득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 낮다”

- 현재 빈곤층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높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1.1%이며, 현재 중산층이 내고 있는 세금이 ‘높다’는 응답은 39.1%임.
- 반면, 현재 고소득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의견으로는 ‘높다’는 응답이 4.2%, ‘낮다’는 응답이 85.7%임
- 빈곤층이 내고 있는 세금이 ‘높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중산층이 내고 있는 세금이 ‘높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높다’라는 응답은 가구소득 ‘701만원 이상(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높다 ■ 적당하다 ■ 낮다 ■ 잘 모름

N(전체)=3,500명  
(단위 : %)



#### 빈곤층이 내고 있는 세금

Base=전체	사례수 (명)	높다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70)	58.7
101만원~200만원	(350)	56.5
201만원~300만원	(559)	56.7
301만원~400만원	(654)	53.7
401만원~500만원	(588)	50.9
501만원~600만원	(426)	47.1
601만원~700만원	(232)	47.0
701만원 이상	(430)	40.4
잘모름	(89)	44.6

#### 중산층이 내고 있는 세금

Base=전체	사례수 (명)	높다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70)	23.2
101만원~200만원	(350)	33.7
201만원~300만원	(559)	37.8
301만원~400만원	(654)	38.2
401만원~500만원	(588)	40.5
501만원~600만원	(426)	43.4
601만원~700만원	(232)	44.6
701만원 이상	(430)	44.6
잘모름	(89)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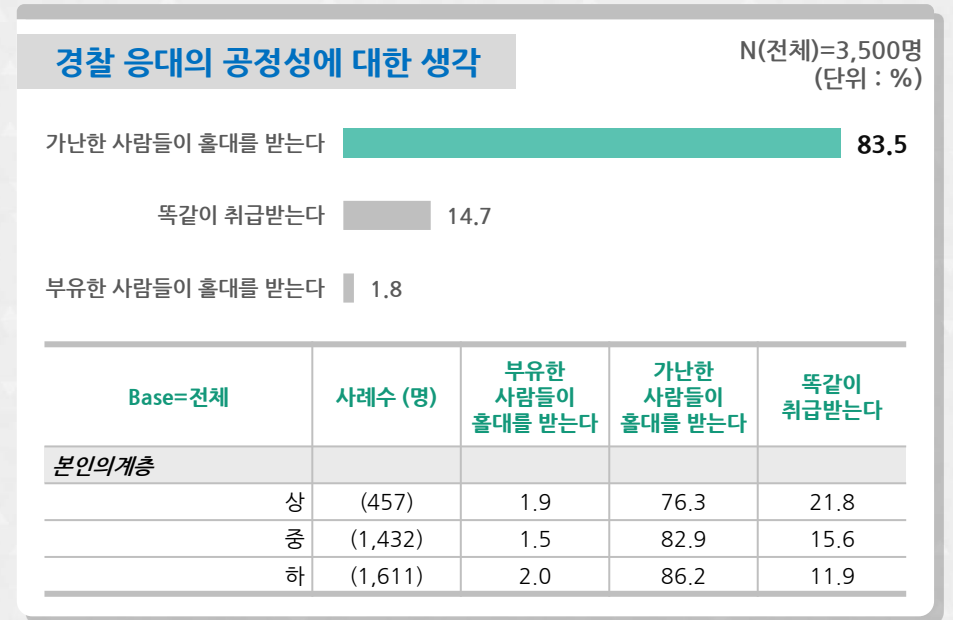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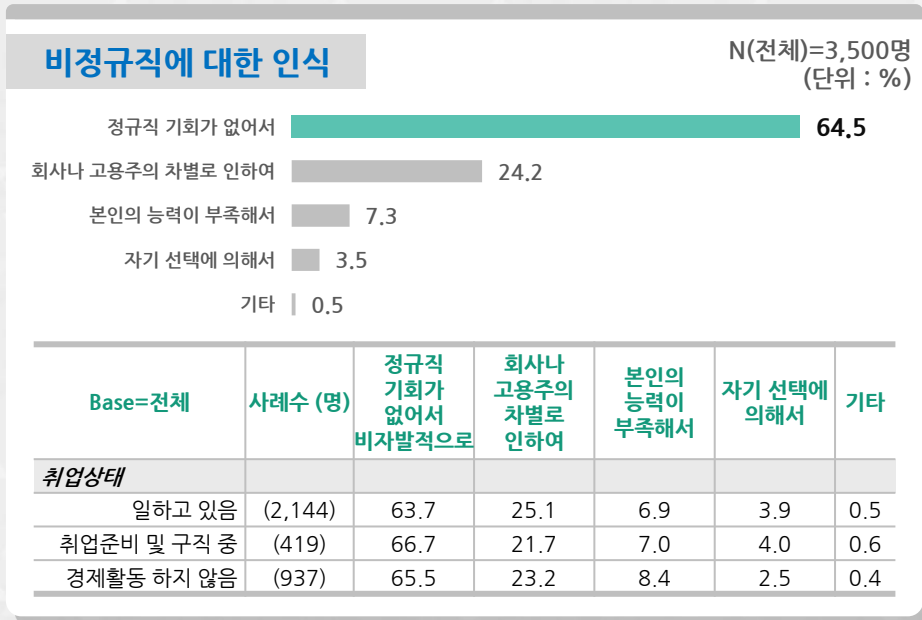
####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

Base=전체	사례수 (명)	높다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70)	4.7
101만원~200만원	(350)	3.5
201만원~300만원	(559)	3.0
301만원~400만원	(654)	3.3
401만원~500만원	(588)	3.4
501만원~600만원	(426)	4.9
601만원~700만원	(232)	2.9
701만원 이상	(430)	8.8
잘모름	(89)	4.1

### (3) 비정규직 및 경찰 응대에 대한 인식

####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은 정규직 기회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일자리” 10명 중 8명, “경찰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홀대 받는다”

-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정규직 기회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음. 그 외, ‘회사나 고용주의 차별로 인하여(24.2%)’,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7.3%)’, ‘자기 선택에 의해서(3.5%)’ 순임
-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가 ‘정규직 기회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란 응답은 ‘취업준비 및 구직중(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경찰 응대의 공정성에 대해 묻은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응답이 83.5%로 높음. 그 외,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응답이 14.7%이며, ‘부유한 사람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 경찰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홀대받는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응답은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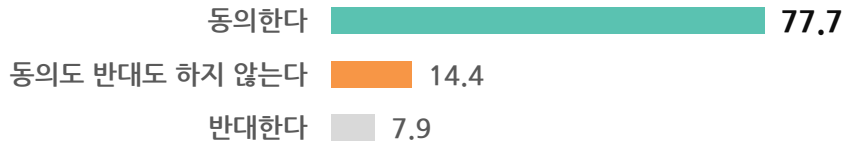
## (4) 법원/수명 불평등에 대한 인식

### 10명 중 8명, “법원은 서민보다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의 이익을 더 보호한다” 10명 중 6명, “수명 불평등이 존재한다”

- ‘법원이 서민보다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의 이익을 더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7.7%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7.9%임
- ‘동의한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을 낮게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대(8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수명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3.7%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함
- ‘동의한다’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대(7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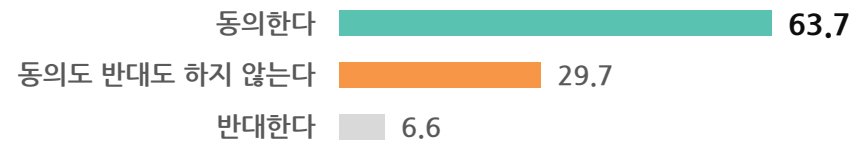
N(전체)=3,500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b>연령(10세)</b>				
16세-18세	(165)	63.5	21.7	14.7
19세-29세	(629)	73.0	17.5	9.6
30세-39세	(653)	80.7	11.8	7.4
40세-49세	(756)	82.5	11.5	6.0
50세-59세	(710)	80.0	12.6	7.4
60세-74세	(588)	74.5	18.0	7.5
<b>본인의계층</b>				
상	(457)	71.0	19.6	9.4
중	(1,432)	76.4	15.3	8.3
하	(1,611)	80.8	12.2	7.0

#### 수명 불평등에 대한 생각

N(전체)=3,500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b>연령(10세)</b>				
16세-18세	(165)	41.8	44.9	13.3
19세-29세	(629)	54.5	36.6	9.0
30세-39세	(653)	72.0	23.8	4.2
40세-49세	(756)	70.9	24.7	4.4
50세-59세	(710)	66.7	27.0	6.3
60세-74세	(588)	57.5	34.2	8.3
<b>본인의계층</b>				
상	(457)	59.2	32.0	8.8
중	(1,432)	61.7	31.4	6.9
하	(1,611)	66.7	27.5	5.8



## (5) 안전에 대한 실태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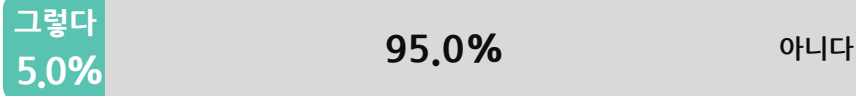
10명 중 9명, 지난 5년 간, 도둑/강도/폭행 당한 경험 “없다”

10명 중 6명, 밤에 혼자 걸어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 ‘5년 간, 가족 중에 도둑이나 강도,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95.0%, ‘그렇다’라는 응답이 5.0%임
- 본인의 계층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아니다’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밤에 혼자 걸어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7.2%, ‘안전하다’라는 응답이 42.8%임
-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본인의 계층을 낮다고 인식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1.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5년 간, 도둑/강도/폭행 당한경험 여부

N(전체)=3,500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b>본인의계층</b>			
상	(457)	3.6	96.4
중	(1,432)	4.4	95.6
하	(1,611)	5.9	94.1

### 밤에 혼자 걸어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

N(전체)=3,500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b>성별</b>			
남자	(1,773)	57.1	42.9
여자	(1,727)	28.2	71.8
<b>본인의계층</b>			
상	(457)	51.1	48.9
중	(1,432)	43.4	56.6
하	(1,611)	39.9	60.1

Hankook  Research